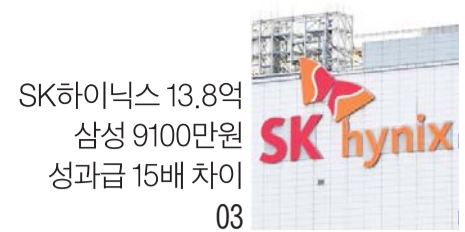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5967.75	↑ 코스닥	1121.88
	(+159.13)		(+22.04)
↓ 금리 (미국 3년)	3.339	↓ 환율 (원/달러)	1476.80
	(-0.043)		(-12.50)



스페이스X '잭팟' 미래에셋증권 재평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실적과 주가 모두에서 재평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브로커리지와 운용 부문 호조에 더해 글로벌 투자자산 가치 상승까지 겹치며 '이익 체력'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1조2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컨센서스를 최대 50%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 약 1조원이 실적을 견인한 영향이 크다.

브로커리지와 운용 부문도 동반 개선 흐름을 보였다. 증시 거래대금 증가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고, 플로우 트레이딩과 마케팅 성과까지 더해지며 운용손익 역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실적·주가 '3박자' 흐름 1분기 지배주주순익 1.2조 추정 주가 7만1800원, 올해 190% ↑ 주주환원율 약 40% 유지할 듯

단순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주가 흐름도 가파르다. 이날 종가 기준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7만2400원으로 전일 대비 7100원(10.87%) 올랐다. 연 초 약 2만3000원 수준에서 출발한 주가는 현재까지 약 192% 상승하며 증권업 종내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글로벌 투자자산 가치 상승과 스페이스X 투자 성과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증권가 역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국내 증권사 8곳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은 7만7833원, 최고치는 11만원에 달한다. 글로벌 사업 확장과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 가능성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



미래에셋증권 사옥. /미래에셋증권

데이터·물류 '생존형 초협력' 시대

유통업계 '수익성 중심' 전략

물류 효율 최적화·인프라 공유 대형마트 '혼재적재' 도입하고 홈플러스-쿠팡이츠, 물류 협업 장보기·쇼핑 서비스 확대 운영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등 대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통업계의 경영 전략이 '외형 성장'에서 '수익성 중심의 실용적 협력'으로 급격히 선화하고 있다. 과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속도와 최저가 경쟁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기업 간 자원 공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패 없는 상품을 개발하는 효율 경영이 핵심 생존 전략으로 부상했다.

국내 원유는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따라 비용이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유통사들의 비용 부담이 물류비와 수입 원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업계는 배송 시간 단축보다는 운송 효율 최적화와 인프라 공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에는 품목별 배송 대신 여러 상품을 함께 싣는 '혼재 적재'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점포 진열의 편의성보다 운송 효율을 줄여 유틸리티를 절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됐다.

또한 자사 물류망에만 의존하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타사 플랫폼과의 연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 예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쿠팡이츠와 협업해 '장보기·쇼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강서점, 서부산



매물 '뚝'... 서울 아파트 '전세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임대차 매물은 전세 1만 5129건, 월세 1만 4597건 등 총 2만 9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집계 초기인 2023년 4월 1일(7만 74건)과 비교하면 약 57.6% 급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임대차 매물은 전세 1만 5129건, 월세 1만 4597건 등 총 2만 9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집계 초기인 2023년 4월 1일(7만 74건)과 비교하면 약 57.6% 급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점, 장원점, 간석점 등 8개 점포에 이어 김포점, 영등포점, 강동점, 전주효자점 등 11개 점포를 추가하면서 쿠팡이츠 내 홈플러스 입점 점포는 전국 47개로 늘었다. 점포 인근 고객이 쿠팡이츠에서 주문하면 신선식품, 베이커리, 델리 등 다양

한 상품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배달로 받을 수 있다. 쿠팡 와우 회원은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 혜택이 적용된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李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는 때라"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이해관계자 절대 침투 못하게 하라"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4일 '주택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라면) 다 때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



서다주택자와 비거주자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때라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까지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간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정청래 "신용한, 총복의 총복 될 것"...신용한 "절박한 마음으로 지선 임해" /사진 뉴시스
- ▲선관위, 개헌 재외국민투표 준비...전세계 공관에 투표관리위 설치

- ▲'해외주식 자금 국내 복귀' 세제 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 ▲박상용, 또 증인선서 거부...與 "위증 결심" 野 "거부·소명 가능"

- ▲오세훈 "정원오,李大통령 심기 경호실장 전락할 것"
- ▲조국혁신당, 시장 단일화·선거제 개편 투트랙 제안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② 영상 촬영 및 편집(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영상제작 및 편집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옥인동, 메트로빌딩)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 작성 또는 영상제작물을 제작해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글로벌 해군력 강화 흐름... K-조선, 군함시장 신성장축 부상

美 등 주요국 해군전력 재정부, 특수선 역량 기반 수주 경쟁 인프라 확보·규제 대응 등 과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11일 진수한 2400톤급 필리핀 원해경비함 1번함 '라자 솔라이만'함. /HD현대

국내 조선업계가 상선을 넘어 군함 시장에서 수주 확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전 세계적 해군력 강화 기조와 합정 현대화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도 특수선 역량을 앞세워 해외 군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군함 시장은 몇 년새 급격한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해군 함정 시장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및 그 동맹국의 해저 전력 재정부, 통합 센서·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기존 함정 개량과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 등이 시장 성장을 이끄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국내 조선사들도 글로벌 군함 시장에서 수주 기반을 넓히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해군에 원해경비함(OPV) 1번함을 납품보다 5개월 앞당겨 인도했다. 이 함정은 대잠용 음향 탐지기와 임무 모듈 운용 공간을 갖춰

해상 감시와 해양안보, 군사 작전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HD현대중공업은 2016년부터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호위함과 원해경비함 등 총 12척의 함정을 수주하며 실적을 쌓아왔다.

중남미 시장 공략도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총 6406억원 규모의 함정 4척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3400톤급 호위함 1척과 2200톤급 원해경비함 1척, 1400톤급 상륙함 2척을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태국 시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차세대 호위함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태국 왕립 해군은 4000톤급 호위함 4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초도 물량인 2척 확보를 위해 350억바트(약 1조6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나머지 2척까지 포함한 전체 도입 규모를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3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서부 최대 조선사인 제너럴다이나믹스 나스코(NASSCO)와 협력해 미국 해군 차세대 군

수지원함(NGLS) 사업의 개념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미국 특수선 설계업체 바르드(VARD)와 협력해 같은 사업의 개념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안 민감도가 높은 전략 군함 건조보다 군수지원함이나 MR O처럼 상대적으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공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군함 시장은 관련 법과 제도, 현지 생산 인프라 문제 등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조선소 확보나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해 투자 부담과 규제 이슈도 크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 시장을 장기 과제로 두고 상대적으로 진입 여건이 나은 미국의 시장에서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방산 수요 전반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해군 전력 강화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 1면 '데이터·물류 생존형'서 계속

기업 '적과의 동침' 불사 경영구조 패러다임 전환

이밖에도 11번가와 SSG닷컴, 컬리와 네이버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신규 인프라 투자 없이도 상품 구색을 늘리고 배송 거점을 확보하려는 '자산 경량화(Asset-light)'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부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전사적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고정비 절감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도 착수했다.

점포 내 조명과 냉난방 운영을 조정하고, 무빙워크가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고 있다. 동시에 태양광 설비 도입과 LED 전환 등 중장기 투자도 확대하는 추세다.

식품업계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보유한 방대한 소비 데이터를 제품 기획 단계부터 결합하는 '플랫폼 맞춤형 공동개발(JBP, Joint Business Plan)'을 통해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림과 CJ제일제당은 네이버, 마켓컬리 등 특정 플랫폼 이용자의 검색어와 구매 패턴을 분석해 '당찬 진미 백미밥', '육즙플러스양고기' 등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신제품 실패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채널에 집중함으로써 유통 단계의 거품을 뺀 '고효율 상품군'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울러 단순 가격 할인 경쟁에서 벗어나 우수한 원재료를 사용한 단독 기획 상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방어하고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 독점 상품은 고객 충성도(Lock-in)를 높이는 도구가 되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간 협업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구조적인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채널의 중심축이 이커머스로 이동한 상황에서 고유가·고환율이라는 비용 압박까지 더해져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향후에도 유통업계는 경쟁사와의 경계를 허무는 '적과의 동침'을 불사해서라도 물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타겟팅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중동 산유국, 韓 '역외 석유 비축거점' 요청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 UAE 등 접촉... 비축시설 대폭 확충 주중 에틸렌 등 '긴급수급조정' 결정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을 역외 석유 비축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긴급 협의를 요청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내 비축 시설을 대폭 확충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대체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중동 쪽에서 동북아 비축기지 활용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

문에, 중동 국가들이 호르무즈 밖(한국 등)에 물건을 두고 나중에 팔 수 있으면 리스크를 훨씬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우리 측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가 동북아 비축기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다른 나라도 접촉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며 "이미 얘기된 국가는 UAE가 있고 그외 다른 나라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정유사들의 비축유 확보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8691억원 규모의 '자원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나프타 수급 안정에 6744억 원을 투입한다.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며,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석유화학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자원안보 분야에는 1908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1554억 원은 비축유 104만 배럴을 추가 구입하는 데 쓰이며, 현재 90%에 육박한 비축기지 시설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2000만 배럴 확충을 가정 시 설계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정유사들의 4-5월 물량으로 약 1억 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했다. 도입국은 사우디, UAE를 비롯해 미국, 브라질, 호주 등 총 17개국이다. 양 실장은 "사우디 대체 물량이 제일 많고, 우리가 가져오는 원유의 34%를 사우디에서 가져오기에 대체 원유도 사우디를 통해 들어오는 게 가장 많다"고 전했다.

정유사의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비축유 스왑(Swap) 신청 물량도 4-5월

기준 3200만 배럴 수준으로 늘었다. 국내 4개 정유사가 신청한 4월 스왑 물량은 1700만 배럴로 이 중 838만 배럴(6건)은 비축유 이송이 완료됐고, 4월 중 800만 배럴이 추가로 계약될 예정이다. 5월 스왑 물량은 1500만 배럴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유사들은 현재 6월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핵심 산업 소재 및 민생 품목의 공급망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중심으로 한 '긴급수급조정' 조치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일정이 나오면 대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995.64원, 경유는 1989.13원으로 전쟁 전 대비 각각 17.9%, 24.5% 상승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metro

IMF, 韓 성장률 예측치 유지... 재정부 "추경 집행 효과"

전쟁 영향으로 미·영 등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예측치를 낮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대비 +1.9%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의 예측치와 같은 수치다.

이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0.2%포인트(p) 내려 잡은 것과 대비된다. 종전의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2.4%→2.3%) 대해서도 0.1%p 내렸다. 또 영국(1.3%→0.8%)과 독일(1.1%→0.8%)에 대해서도 각각 0.5%p, 0.3%p 내렸고, 사우디아라비아(4.5%→3.1%) 예측치는 무려 1.4%p나 하향했다.

전망치 유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중동전쟁에 따

른 영향을 받았으나, 추경 효과가 보완한 결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 자원과 수단을 모두 활용해 당장 시급한 물가·공급망·취약부문·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26조 원대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취약부문 지원 등 조속한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

해선 2.5%를 제시했다. 지난 1월 전망에서는 발표하지 않은 바 있다.

IMF는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세계경제가 하방리스크가 지배적이라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AI 수확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IMF는 다만, 무역 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社告

-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 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metro

“SK하이닉스 13.8억, 삼성전 9100만원… 성과급 15배 차이”

맥쿼리 추정치 기준 산출 결과 국내 전망치 대입해도 5배 이상 SK하이닉, 메모리 단일사업 수혜 직결 삼성, 복합사업 구조에 보상 분산 삼성 노사 협상 결과가 최대 변수

		신입급	선임급	책임급	수석보급	수석급 이상
SK하이닉스	맥쿼리 기준	13.8억원	14.2억원	14.8억원	15.2억원	15.7억원+
	국내 컨센서스	6.8억원	7.1억원	7.5억원	7.9억원	8.3억원
삼성전자	노조안·맥쿼리 기준	3.4억원	4.6억원	6.1억원	7.6억원	9억원
	노조안·컨센서스	2.1억원	2.8억원	3.8억원	4.7억원	5.7억원
	사측안	9100만원	1.2억원	1.6억원	2억원	2.4억원

*연봉, PI(생산성 성과급) 포함 총보상 기준 자료/맥쿼리증권, 애프터가이드, 압계추정 종합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2027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직급별 성과급이 어떤 전망치와 협상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소 수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메모리 단일 사업 구조인 SK하이닉스와 복합 사업 구조인 삼성전자 간 보상 체계 차이가 같은 호황 국면에서도 직원 보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증권은 SK하이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을 447조 원으로 전망했다. 현행 PS 체계인 영업이익 10% 배분 구조(상한 없음)를 적용하면 직원 1인당 PS(초과이익분배금)만 평균 12억 9000만 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국내 다수 증권사 평균인 애프터가이드 컨센서스 전망치를 적용하면 1인당 PS는 5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맥쿼리 전망치는

다소 과장된 수치로 볼 수 있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는 협상 결과에 따라 보상 수준이 수억 원 단위로 갈린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인 연봉의 50%를 영구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 6.2% 인상과 함께 메모리사업부가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SK하이닉스 수준 이상의 특별 포상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조합원 93.1%가 파업에 찬성했고 5월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맥쿼리 전망치를 기준으로 직급별 총보상을 계산하면 양사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업계에 알려진 직급별 연봉 수준을 대입하면 SK하이닉스 1~4년차 주임급 총보상은 약 13억 8000만 원이며 ▲5~8년차 선임급은 약 14억 2000만 원 ▲9~12년차 책임급은 약 14억 8000만 원 ▲수석보급은 약 15억 2000만 원 ▲부장급에 해당하는 수석급 이상은 15억 7000만 원을 넘어선다.

삼성전자는 노조 협상안을 적용할 경우 전사 영업이익의 15%인 약 71조 4000억 원이 성과급 재원이 된다. 노조가 요

구하는 DS 부문 70% 배분 방식을 적용해 메모리사업부 조합원 2만 7000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신입 CL1은 약 3억 4000만 원이며 ▲선임급 CL2는 약 4억 6000만 원 ▲책임급 CL3는 약 6억 1000만 원 ▲수석보급은 약 7억 6000만 원 ▲수석급 이상은 약 9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DS 전체 직원 8만 2000명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수치는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사측 협상안대로 타결될 경우 OPI가 연봉의 50%로 묶이는 구조는 영업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업계에 통용되는 연봉 수준을 대입하면 신입 CL1은 총액 9100만 원이며 ▲선임급 CL2는 약 1억 2000만 원 ▲책임급 CL3는 약 1억 6000만 원 ▲수석보급은 약 2억 원 ▲수석급 이상은 약 2억 4000만 원 수준이다. 사측 협상안은 실적 전망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맥쿼리 전망치 기준 SK하이닉스 주임급(13억 8000만 원)과 삼성전자 사측 협상안 신입(9100만 원) 사이에는 15배 가까운 격차가 벌어진다.

국내 컨센서스 전망치를 적용해도 방향은 같다. SK하이닉스 주임급 총보상은 6억 8000만 원이며 ▲선임급은 7억 1000만 원 ▲책임급은 7억 5000만 원 ▲

수석보급은 7억 9000만 원 ▲수석급 이상은 8억 3000만 원대로 추산된다. 삼성전자 노조 협상안 기준으로는 메모리 조합원 기준 신입 CL1이 약 2억 1000만 원이며 ▲선임급은 2억 8000만 원 ▲책임급은 3억 8000만 원 ▲수석보급은 4억 7000만 원 ▲수석급 이상은 5억 70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이 같은 격차는 보상 체계와 사업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9월 노사 합의로 영업이익 10%·상한 폐지 구조가 이미 확정된 반면, 삼성전자는 협상 테이블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 구조 차이도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단일 사업 구조여서 슈퍼사이클 수익이 직원 보상에 직접 반영되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시스템LSI·스마트폰·가전 등 복합 사업 구조로 수익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 노사는 5월 총파업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2027년 직원들의 보상 수준은 수 억 원 단위로 갈린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IPO 한파에 치열해진 주관 경쟁… ‘대형사 리그’ 굳어지나

1분기 상장 9곳, 공모시장 급속 냉각 케이뱅크 빼면 공모액 1000억 이하 중복상장 규제·심사강화에 문턱 높아



Chat GPT로 생성한 '기업공개(IPO) 시장' 이미지.

올해 1분기 기업공개(IPO) 시장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증시가 활황을 보인 것과 달리 상장 건수와 공모금액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며 시장 규모가 쪼그라든 모습이다. 중복상장 규제와 상장심사 강화 기조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상장 문턱은 높아지고, 제한된 딜을 둘러싼 증권사 간 주관사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공모시장도 대형사 쏠림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대어가 없다’… 확 쪼그라든 IPO 시장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상장 기업은 9곳(스팩 등 제외)으로, 전년 동기 23곳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스�팩 상장을 포함해도 11곳으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1분기 평균 28개 기업이 IPO에 성공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상장한 케이뱅크를 제외

하고는 공모금액이 모두 1000억원 이하의 소규모 딜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대어로 주목받은 케이뱅크의 공모금액은 4980억원으로 1분기 공모금액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이외 8개사의 공모금액 평균은 343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모금액 역시 7721억원으로 1조원으로 못 넘기면서, 전년 1조 8430억원 대비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1999년부터 2025년까지 1분기 평균 공모금액인 1조 1317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IPO 시장은 증시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2분기에도 위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분기 IPO 예상 기업 수는 8곳이며, 공모금액 규모도 2000억원 이하일 것으로 보여진다.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 연구원은 “올해 2분기 대어급 기업이 추가적으로 상장을 진행하는 곳은 없고, 비수기의 관망세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분기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이 이어졌지만, IPO 시장은 오히려 얼어붙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상장 시도가 신중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트우드파트너스의 김한진 연구원은 “최근 상장을 준비하던 중견기업 기획팀이나 자문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로 인해 자금조달의 옵션이 제한됐다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 IPO는 단순한 엑시트 수단이 아니

라, 주주보호와 지배구조 개선까지 입증해야 가능한 선택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벨류업 공시나 주주간담회는 기본이고, 말뿐인 보호가 아닌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모·자회사 주식교환, 강력한 자사주 소각 같은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딜 가물에 주관 경쟁 격화… 대형사 중심 패권

IPO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줄어든 만큼 증권사들의 주관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대형사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상장건수 97건(스팩 제외) 중 공동주관 포함한 66건(약 68%)은 대형 증권사가 상장 주관을 맡았다. 2022년 58%에서 2023년부터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70%에 근접한 모습이다.

주목되는 점은 대형사들의 순위도 치열하게 뒤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에는 NH투자증권이 3002억원의 주관실적을 올리면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증권은 2490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압도적인 성과로 주관실적 1위를 기록했던 KB증권은 올해 1분기에는 1건의 상장 주관을 성공하며, 공모총액 77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 LG CNS 상장을 주관하며 선두를 치고 나갔지만, 올해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어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대형딜 위주로 운영하던 KB증권 전략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공모주 시장은 변동성 확대와 기술특례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장 일정이 지연되거나 일부 딜이 연기되면서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축소된 상황”이라며 “이런 환경 속에서 발행사와 투자자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IPO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올해 코스닥 기업 채비 등을 포함해 4건의 딜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건 이상의 심사 청구를 계획해 연내 상장을 목표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李 “형벌 납벌에 한국인 전과 세계 최다일 것”

》1면 ‘李, 서류 복사 직원도…’서 계속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

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언급하며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유념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비 급등 상황에 대응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소비를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나에 대한 반론이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알리 있는 지적인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벌 남용으로 법체계가 과잉·혼란 상태에 이르렀으며 규정 정비·체계화·행정제재 전환 중심의 ‘형사법 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재차 “전 세계에서 대한

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이라며 “예비군훈련법 위반, 민방위 기본법 위반, 옛날에는 연탄이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땀다고 산림법 위반이 있었다.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다”며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 과징금이 별로 효과가 없어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신현송, 중립금리·금리동결·추경·환율 ‘조건부 대응’ 기조

오늘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

초기 ‘실용적 패파’ 이미지와 달리 서면답변서 “물가만 기계적으로 우선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환율 변동성 확대·과급경고 중시 개인 자산·인사 검증 등 검증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고환율과 중동발 유가 불안, 성장 둔화 우려가 한꺼번에 겹친 국면에서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떤 조건에서 움직일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재정경제기회위원회(재경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한다.

지난 3월22일 지명 직후 시장 일각에선 신 후보자에게 ‘실용적 패파’ 이미지를 먼저 덧씌웠다. 대통령실이 그를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평가한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 경력 자체가 물가와 환율, 금융불균형에 더 민감한 통화정책을 예고하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문회 직전까지 후보자 본인

이 내놓은 메시지는 단순한 긴축 선호와는 거리가 있다. 그는 지명 직후부터 물가·성장·금융안정을 함께 보겠다고 했고, 지난 3월 31일 첫 출근길에서도 매파·비둘기과 이분법보다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서면답변에선 현 기준금리(연 2.50%)를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로 평가했고, 최근 금리 동결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 금리 판단 기준이 첫 번째 검증대

청문회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금리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신 후보자의 메시지는 지명 직후의 ‘매파(통화·긴축 정책 선호)’ 이미지와 달리 중립금리 인식, 금리 동결 평가, 추경 효과 판단, 환율 대응 원칙 모두에서 한쪽으로 기운 성향론보다 조건부 대응에 가까웠다.

신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통화정책

은 물가안정을 우선하되 금융안정과 성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만 기계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는 일시적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 대응이 불필요할 수 있지만, 충격이 장기간 지속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후보자의 발언은 청문회의 질문이 “금리를 올릴 생각이 있느냐, 내릴 생각이 있느냐”에 머물지 않을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환율과 유가가 물가를 밀어 올리는 동시에 성장 하방 압력도 커질 때 어떤 지표 조합을 가장 중시하고, 어느 시점에 정책 판단을 바꿀 것인지가 진짜 검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에 대해 신 후보자는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끌어 올릴 수 있지만 물가 자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 환율·외화자산, 두 번째 검증대

두 번째 축은 환율 인식과 정책 신뢰다. 신 후보자는 최근 서면답변에서 “과도한 환율 상승에는 필요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통해 소비자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외환보유액과 달러 유동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해, 환율 레벨 자체보다 변동성 확대와 그 과급경고를 더 중시하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대목은 신 후보자 개인의 외화자산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 민감해졌다. 신 후보자는 외화자산 정리 계획과 관련해 상장지수펀드(ETF)와 영구 국채 등 총 18억9000만달러를 이미 매각했고, 다른 해외자산도 순차적으로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 오피스텔과 미국 아파트도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문회가 인사 검증 쪽으로 넓어진 것도 변수다. 현재 정치권에선 신 후보자의 가족 국적 문제와 다주택 보유, 모친 아파트 매입 과정을 둘러싼 ‘갭투자’ 및 무상거주 논란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장녀의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 문제는 곧 정리하겠다”며 “배우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美, 韓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예비 판정... 철강업계 ‘부담’

포스코 3.71%, 현대제철 1.28%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 쟁점으로 작용 매년 세율 변동... 실적 영향엔 제한적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행정재심 예비 결과를 내놓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관세와 함께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연방관보를 통해 2023년 한국에서 생산·수출된 특정 열연강판 제품에 상계관세 대상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 예비 산정된 순상계관세율은 포스코 3.71%(2022년분 대비 +2.24%포인트), 현대제철 1.28%(-0.93%포인트)다.

미국의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는 지난 2016년 10월 도입된 뒤 매년 행정재심을 거쳐 관세율이 재산정되고 있다. 보조금 규모와 산정 방식에 따라 같은 기업도 연도별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열연강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연연강판 행정재심 예비 결과에서도 포스코 3.67%(2022년분 대비 +2.20%포인트),

현대제철 1.28%(-0.93%포인트)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했다. CTL 강판의 경우 2023년 수입분 기준 동국제강 2.21%(2022년분 대비 +0.20%포인트), 현대제철 1.31%(-0.90%포인트)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심에서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미국 정부도 이를 상계관세 판단 항목으로 검토해왔다.

이재윤 철강산업연구원은 “관세율 자

체는 크지 않지만 보조금 산정이 보다 엄격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232조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면 반덤핑·상계관세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인 만큼 한국 업체에는 상대적인 경쟁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관세에도 한국산 수출이 이어질 경우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산정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이를

50%로 인상했다. 지난 2일 발표된 포고령에서도 철강 원자재에 대한 50% 관세는 유지됐다.

다만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제철의 연간 철강 생산능력은 약 2400만톤, 실제 생산량은 약 2000만톤 수준이며 이 가운데 대미 수출 물량은 약 40만톤으로 전체의 약 2% 수준이다. 동국제강 역시 2023년 기업분할 이전 기준 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1%대에 그친다. 유안타증권은 2024년 기준 한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판재류의 대미 비중이 5.8%로 강관 59.2%, 봉형강류 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 1면 ‘스페이스X ‘잭팟’...’서 계속

정의선 회장 “진화 중심에 ‘로보틱스·피지컬 AI’”

현대차,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참여 글로벌 청정 에너지 전환에 ‘수소’ 주목 미래기술 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열린 대규모 경제 컨퍼런스에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핵심 전략 시장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대내외 투자 규모를 키우며 미래기술기업으로의 전환에 집중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13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2026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뉴스 플랫폼 세마포가 개최한 행사로,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주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각국의 민관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는 경제 컨퍼런스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13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2026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행사에 참석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부회장, 성 김 사장, 호세 무뇨스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분야를 넘어 더욱 진화하는 과정의 중심”이라며 “첨단 AI로 구동되는 협업 로봇과 인간을 연결함으로써 이를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가 글로벌 청정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비전의 핵심 축으로 수소 에너지도 주목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공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제품 생산 확대, 인도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생산 기지 구축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시장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대차그룹은 유연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 나가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경쟁은 혁신을 자극하는 요소이며 현대차그룹은 경쟁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새만금 지역 혁신성장거점 투자 프로젝트에도 정의선 회장이 강조한 ‘로봇·AI·에너지 설루션 중심 미래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 34만 평 부지에 약 9조 원을 투자해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AI 데이터 센터, 1GW(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미래 신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14일 세마포 컨퍼런스 무대에서도 모빌리티 혁신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양성운 기자 ysw@



metro

밸류에이션 부담 잔존 보수적 투자 접근 필요

이러한 실적 개선 신호는 주주환원 확대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셋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40%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안타증권의 우도형 연구원은 “올해 주주환원율은 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합병 자사주 소각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나온 이후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셋증권은 최근 자사주 소각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며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스페이스X 평가이익 등으로 단기 실적이 급증했지만, 지속성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투자 의견 ‘보유’ 또는 ‘중립’을 유지하며 숏소르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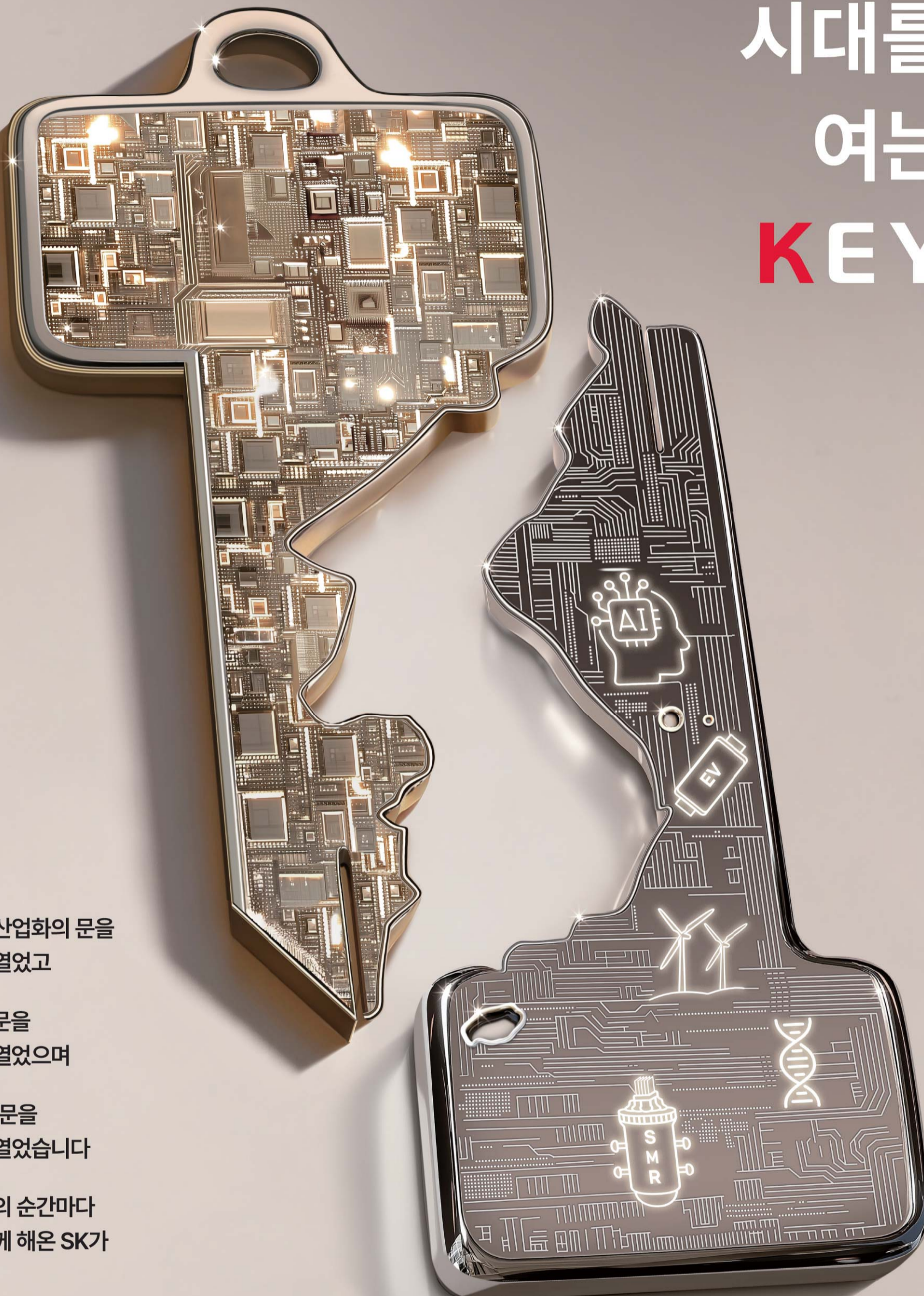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박상용 증인 선서거부 논란... 與 “위증 의도” 野 “법적 권리”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관련 청문회 핵심 증인 박상용 검사 퇴장 조치 민주 “사실 밝혀지면 국힘도 책임” 국힘 “인권·사법적 권리 존중해야”

여야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증인이 했던 발언들은 속기록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나와 있다”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처럼 서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제 입장은 (박 검사는) 나가서 대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운데 줄 왼쪽 첫번째)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인사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박 검사의 퇴장 조치를 내리며 “박 검사는 온갖 조작 수사를 주도하고 오늘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서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이에 박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명할 실질적 기회를 달라”고 답했다.

여야는 박 검사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대국민 앞에서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민의

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며 “모든 사실이 드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명을 들어줘야 되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왔던 내용들이 전부 조작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부당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도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할 수가 있다”며 “국회가 핵심 증인들의 인권, 사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명서는 위원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같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박 검사는)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조국, 평택을 재선거 출마... “힘지 도전”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 강조 “국민의힘 제로로 만드는 것 목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평택을은 19대·20대·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 힘지 중 힘지”라고 했다.

또 조 대표는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이 맞다”고 강조했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재선거 지역이 됐다.

그는 “과거 전주에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선을 했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귀책사유가 있기에 무공천을 결정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당대표 때는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며 “이재명 당시 대표의 결정이 맞는 것이고, 그게 책임 정치의 원칙”이라고 비교했다.

다만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재보선 전 지역 공천을 공인한 점을 두고는 “민주당 대표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며 “5자 구도가 되든 6자 구도가 되든 경쟁을 통해 이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나 선거연대 여부에 대해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평택을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평택을 주민은 매우 현명하다”며 “정당 사이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유권자 스스로의 평가와 판단에 기초해 표를 제게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김도읍, ‘무공천’ 제안... “3자구도 불리”

(부산북구갑)

국힘 지도부 “후보 낼 것”

부산이 지역구인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무공천’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후보를 낼 경우 3자 구도가 형성돼 보수 진영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부산 북갑에 공천을 진행할 경우,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에 어려운 구도가 될 것이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만나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 세력인 한 전 대표의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덕동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고 앞으로 여기에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혀 사실상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당 후보와 단일화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한 전 대표를 설득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구성원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고, 그런 일은 지도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권한이 없는데 단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 2025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화를 위해 저희들이 나서서 것은 맞지 않다.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지도부가 무공천에 강경한 입장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서의)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공천하겠다고 하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라고 반문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 북갑에 후보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갑 자리가 비면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것”이라며 “무공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재수 의원이) 사퇴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 안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후보를 내고 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공당으로서 부산 북갑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후보를 안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부산·경남, ‘지방분권형 행정통합’해야”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14일 국회에 부산과 경남의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촉구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이

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라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중앙에 중속

된 ‘지방’에서 탈피해 스스로 독립된 ‘정부’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중앙 집권적 시각에 머물지 말고 과감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울산이 행정통합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울산은 당초에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부산과 경남이 먼저 출발했다. 울산시장이 부산·경남 먼저 하고 나면 울산이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답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구직청년에 최대 360만원 수당... 취업시 150만원 더 준다

(월 60만원씩 6개월 간)

청년 정책·금융상품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비 지원 5년간 300만원... 취업연계 교육도 연 4.5% ‘청년 미래이음대출’ 출시 34세 이하 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

일 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선호로 고용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양질의 일 자리를 찾는 청년의 수요와 미스매치도 발생해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5%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내려 3년 연속 하락했다.

◆ 청년 취업지원 제도 확대

정부는 구직 청년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규모를 올해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신해 도입됐다. 국취제는 저소득층·실업자·경력 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



청년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고, 최대 6개월간 총 3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국취제(1유형)는 15~69세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운영되거나 이전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며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15~34세 청년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 120%, 가구재산 5억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된다. 실업이나 구직 기간 등 요건도 제외되는 만큼, 구직활동을 최근에 시작한 청년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34세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국취제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증이나 직업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 이후 5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비용은 소득 수준이나 교육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교육기관은 취업

연계형 교육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국취제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진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고용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도 개편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한 비수도권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는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별 인구감소율에 따라 비수도권 권역을 일반 비수도권 지역·우대지원 지역·특별지원 지역으로 차등하며,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최대 720만원까지 확대했다. 단,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해 매 6개월마다 2년 동안 분할 지급된다.

◆ ‘문턱’ 낮춘 청년정책금융

구직·창업준비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상품도 다수 출시됐다. 신용정보가 불충분한 청년도 낮은 금리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미래이음대출’이 출시됐으며,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운영했던 기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도 한도와 상환기간을 대

폭 확대했다.

취업 준비 및 구직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지난 3월 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 ‘청년 미래이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미래이음대출은 취업·창업·정착자금 등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대출을 심사해 신용이 불충분한 청년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상품이다.

청년 미래이음대출은 최대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최대 11년(거치 6년·상환 5년)으로 길다. 단,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및 취업·창업 1년 이내의 청년으로 제한된다.

창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 자영업자라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34세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연 4.5%의 금리에 최대 7년(거치 2년·상환 5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분기로 예정된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통한 이자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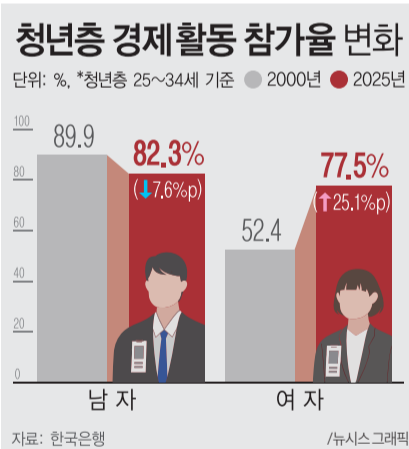
고학력 여성·AI 등 확산... ‘일하는 청년남성’ 비율 급락

한은,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작년 82%... 15년간 7.6%p 떨어져 韓, OECD국가 중 하락폭 가장 커 산업구조 초대졸 이하 男에 불리해져

우리나라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요국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와 저학력 남성에게 불리한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이 청년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 노트-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에 따르면 남성 청년층(25~3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89.9%에서 2025년 82.3%로 7.6%포인트(p)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크고 추세도 가파른 편으로 분석됐다.



밀레니얼 세대(1981~95년생)의 경제활동 참여 저하는 30대 후반까지도 이어졌다.

한은은 남성 청년층 경황률 하락의 대부분이 ‘쉬었음’과 ‘취업준비’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실제 2003~2025년 경황률 차이를 형태별로 분해하면 25~29세와 30~34세 모두에서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규교육기관 통학이나 육

아·가사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보고서는 우선 고학력 청년층 내부 경쟁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1991~95년생 4년제 이상 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률은 61~70년생 같은 학력 남성보다 15.7%p 낮아진 반면, 여성은 10.1%p 높아졌다. 이에 따라 4년제 이상 청년층에서 여성의 노동공급 비중은 남성 대비 2000년 51.5%에서 2025년 95.5%로 높아졌다. 전문직에서는 남녀 비중이 거의 같아졌고 사무직에선 여성 취업자가 남성의 113.8% 수준까지 올라왔다.

반면 산업구조 변화는 초대졸 이하 남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초대졸 이하 남성의 노동공급 확률은 2000년에 비해 2.6%p 낮아졌다. 제조업·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중·저숙련 일자리가 줄면서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저학력 여성의 경우 제조업·건설업 비중은

낮고 보건복지 등 일자리가 늘어난 업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 대조를 이뤘다.

고령화와 AI 확산도 청년층 신규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04~2025년 고령층 고용률은 12.3%p 높아졌고, 상승분의 대부분이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또한 2022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의 대부분인 98.3%가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돼, AI 확산이 초기 단계에서 엔트리 레벨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은은 남성 청년층 경황률 하락과 여성·고령층 경황률 상승 자체는 사회규범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공급이 다양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남성 청년층 경황률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한 점은 우려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선 오티에르 반포 전경.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반포 청약 1순위 3만가구 몰려

평균 경쟁률 710대 1, 전타입 마감

당첨만 되면 2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오티에르 반포’의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석달만에 잔금까지 해결해야 하지만 4만 6000명이 넘는 현금부자가 몰렸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티에르 반포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710대 1로 집계됐다. 43가구 모집에 3만540명이 접수해 전타입이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됐다.

전용 59㎡B 타입이 15가구 모집에 1만713명이 신청해 경쟁률 1180대 1을 기록했다. 59A와 84A의 경쟁률도 각각 939대 1, 769대 1에 달했다.

오티에르 반포는 앞서 특별공급에서도 평균 경쟁률 360대 1로 전타입이 마감됐다. 43가구 모집에 1만5505명이 접수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반포는 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첫 단지다. 단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용 44㎡부터 115㎡까지 다양한 면적대가 공급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KTX·SRT 연결, 좌석 두배늘려 운행

국토부-코레일 ‘시범 중련운행’ 내달 16일 운행, 오늘부터 예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이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KTX-SRT 중련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

는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이어서 운행하는 방식이다.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도 더 많은 좌석을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주말 수서~광주송정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SRT(410석)에

KTX-산천(410석)을 추가해 좌석이 820석으로 늘어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원래 KTX끼리 이어진 채 다니던 열차를 KTX와 SRT 연결로 변경한다. 총 좌석 수는 동일하며 연결운행에 따른 안전성과 이용편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월요일과 금요일 일부 열차는 코레일과 에스알이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연결해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중련운행 열차의 경우 출발 시간은 기존과 같지만 열차 구성이 달라, 예매할 때 KTX와 SRT를 모두 조회해야 한다.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과 누리집,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할 수 있다.

시범 운행 열차의 KTX 요금은 SRT 수준으로 약 10% 할인한다.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도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한다. 다만 할인을 받으면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한화오션, 노바스코샤 주정부·어빙조선소 협력 확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

김희철 대표, 캐나다 현장경영 분주 MRO 분야 등 산업기여 의지 밝혀 “지속가능한 잠수함 생태계 구축”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 P) 수주를 겨냥해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정부와 현지 최대 조선소인 어빙조선소와의 협력 확대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지 정부·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해 잠수함 건조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까지 아우르는 장기 협력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4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김희철 대표는 최근 캐나다 헬리팩스를 방문해 팀 휴스턴 노바스코샤 주총리 등 주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방산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캐나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왼쪽에서 네번째),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팀 휴스턴 주총리(왼쪽에서 세번째) 등 양국 관계자들이 면담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오션

국방 현대화 기조에 맞춰 방산 대비 태세 강화,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확보, 현지 인력 양성, 산업 기반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화오션은 이 자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장기 산업 참여 및 유지·보수 전략을 공유하고, 캐나다 내 산업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바스코샤는 함정 건조와 장기 MRO에 적합한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항공우주, 해상풍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어 어빙조선소의 더크 레스코 사장과 만나 캐나다 해군의 자주적 잠수함 역량 확보를 위한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양측은 한화오션과 어빙조선소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숙련 인력 육성, 안정적인 공급망 형성, 중소기업 참여 확대, 캐나다 정부가 중시하는 자국 산업 생태계 강화가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주도의 장기 잠수함 MRO 산업 기반을 구

축할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어빙조선소는 북극·연안 경비함, 헬리팩스급 호위함 MRO, 차세대 이지스시스템을 탑재한 리버급 구축함 사업 등 캐나다의 주요 해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지 최대 조선소다. 캐나다 국가조선전략(NSS) 아래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 광범위한 국내 공급망도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의 설계·건조 기술력과 어빙조선소의 현지 생산·공급망 역량이 결합될 경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MRO 체계와 산업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캐나다 산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캐나다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잠수함 운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 SDV·전기차 등 매년 신차 출시

니콜라 파리 사장 중장기 계획 발표 부산공장에서 SDV·전기차 생산 방침

르노코리아가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신차를 출시한다. 특히 2027년에는 SDV를, 2028년에는 부산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방침이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그랑 콜레오스와 필라트 등 하나의 성공 사례인 오로라 프로젝트에 머무르지 않고 퓨처레디 플랜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르노코리아는 르노그룹의 D, E세그먼트 핵심 성장축을 맡을 수 있도록 플래그십 모델을 설계하고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E-Tech를 전동화 전략의 두 축으로 함께 이어간다는 르노그룹의 전략에 맞춰 2029년까지 매년 한 대의 새로운 전동화 모델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2028년부터는 차세대 르노 전기차를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출시할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최고경영자(CEO) 사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르노코리아의 중장기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에서 생산할 차세대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공급망 조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르노코리아는 2027년 첫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출시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레벨2++와 AIDV(인공지능 정의 차량)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구진과 파트너사 간 수평적 협업을 확대하고, 도심과 고속 주행 환경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방식 파일럿

주행 기능과 차세대 인공지능(AI) Open R 파노라마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생산과 개발 체계도 바뀐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을 스마트 제조 허브로 발전시키는 한편, 신차 콘셉트 결정부터 생산 개시까지 걸리는 개발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파리 사장은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부품과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국내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속도와 원가,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2024년 D세그먼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콜레오스와 2026년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필라트를 잇달아 선보이며 오로라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데 이어, 앞으로는 전동화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파리 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차량을 선보일 것”이라며 “그랑 콜레오스와 필라트 등을 개발하며 현재 르노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 AI 연구원, 금융 AI 에이전트 서비스 추진

LSEG·키움증권 3자 업무협약

LG AI 연구원이 런던증권거래소그룹(이하 LSEG), 키움증권과 손잡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추진한다.

14일 LG에 따르면 3사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전략적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키움증권 투자자 플랫폼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종목별 예측 점수와 해설을 제공하는 ▲리테일 AI 투자 인사이트 고도화, AI와 데이터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를 공동 발굴하는 ▲자산관리 AI 솔루션 확장, AI 기반 투자 서비스 시장의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3사는 이번 협력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 가능한 AI 투자’ 서비스의 국내 첫 상용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 AI 연구원은 예측 점수만 산출하는 AI가 아닌 ‘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금융 AI 에이전트인 ‘엑사원-BI’를 활용해 ‘설명 가능한 AI 투자’ 서비스를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LG AI 연구원-LSEG-키움증권이 금융 AI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니콜라스 필마뉴 LSEG 글로벌 영업대표, 임우형 LG AI 연구원장, 엄정성 키움증권 대표. /LG

파트너사와 함께 구현할 예정이다. 임우형 LG AI 연구원장은 “금융 AI 에이전트는 정확도만큼 설명 가능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엑사원 BI는 전문가 에이전트들이 협업해 분석부터 예측, 보고서 생성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사람의 판단을 돕는 실질형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고, 이는 LG의 버티컬 AI 기술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 결합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히트펌프 기술 기반 탄소배출사업 확대

골드스탠다드 탄소감축 프로젝트 추진

LG전자가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을 활용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을 전격 확대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시스템을 전기로 사용하는 고효율 히트펌프로 전환하여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국제탄소배출권인증기관인 골드스탠다드(Gold Standard Foundation)에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을 활용한 연료 전환 기반 탄소감축 프로젝트’

등록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인증제를 통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국제 인증기관의 인증을 추진하고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물, 지열 등 외부 열원을 활용하는 설비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 설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어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제시하고 있다.

LG전자는 고효율 히트펌프 판매로 확

보한 탄소배출권 중 일부를 자발적 탄소 시장(VCM)을 통해 수익화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고효율 가전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히트펌프 분야로 영역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4.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4년 기준 사업장 배출량은 약 91만 톤으로, 목표치인 87만 8000톤에 근접하며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제네시스, 국내 누적판매 100만대 돌파

10년만에 값진 성과...G80 42만대 팔려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세단 G80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제네시스는 지난달 국내 누적 판매 100만 2998대를 판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5년 11월 국내 최초 럭셔리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10년 4개월 만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네시스 모델은 G80(전동화 모델 포함)으로 현재까지 총 42만 2589대(42.1%)가 팔렸다. 이어 GV70(18만 9485대·18.9%), GV70

(8만 2131대·18.2%), G90(13만 998대·13.1%) 순이었다. 차종별로는 세단이 61.8%, SUV가 38.2%를 차지했다.

이시혁 제네시스사업본부장(전무)은 “국내 시장은 제네시스의 뿌리이자 글로벌 성장의 중심”이라며 “제네시스의 국내 누적 판매 100만 대 달성은 지난 10년간 국내 고객들이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고객과의 깊은 유대를 강화하며 고객이 가장 원하는 럭셔리 브랜드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쿠쿠홈시스, 근로감독·압수수색에도 ‘원청교섭 거부’ 논란

노조, 사측에 실질적사용자 책임 촉구 기자회견 열고 직접 교섭 거듭 요구
“결정은 본사, 고통은 현장이” 비판 대법원, 설치·수리 노동자 근로자 인정 社측 “위탁계약 따라 서비스 제공”



구분학 대표(사진)가 이끄는 쿠쿠홈시스가 ‘부당노동행위’로 연일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 2·3조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회사가 노조와 직접 교섭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쿠쿠홈시스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맺고 직접고용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위장고용 사례가 의심된다고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도 지난달 말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쿠쿠홈시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4일 생활가전업계에 따르면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설치서비스지부는 전날 서울 노원동 쿠쿠홈시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상대로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재

차 촉구했다.

가전통신노조 이현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쿠쿠홈시스 본사라면 왜 교섭은 소사장과 해야 하나”면서 “결정은 본사가 하고, 책임은 소사장이 지고, 모든 고통은 현장의 내추럴다터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쿠쿠홈시스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내추럴다터’는 쿠쿠홈시스에서 정수기, 비데 등을 설치·수리하는 기사들을 말한다.

대법원은 2022년 당시 쿠쿠홈시스 설치·수리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후 본사인 쿠쿠홈시스는 기존 직영 지점을 소사장 체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내추럴다터는 이들 소사장과 고용계

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에 따르면 가전통신노조 쿠쿠지회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생겼다. 9월에는 전국 조직인 쿠쿠지부가 결성됐다. 그러자 본사가 구성원들의 노조 가입을 막고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잇따라 지부에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간부와 수석부지부장을 계약해지했다.

가전통신노조 쿠쿠지회 정재현 수석부지부장은 “1월말 일방적 계약 해지를 당한 후 복직 투쟁을 했고 소사장과 교섭을 통해 복직에 합의했다. 하지만 쿠쿠홈시스 본사가 전산망에서 ‘사번’을 승인해주지 않아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쿠쿠홈시스는 우리의 생존줄인 ‘전산 계정’을 독점하고 있는 실질적 사용자이자 소사장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것부터, 기사들의 사번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본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쿠쿠홈시스 본사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쿠쿠홈시스측은 노조의 요청에 대한 회사측 대응 등을 묻는 메트로경제의 질

의에 “회사는 설치 법인과 서비스 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노조와 회사의 첨예한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쿠쿠홈시스는 쿠쿠홀딩스가 40.55%로 대주주이고 구분학 대표가 20.53%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외에 구분학 대표의 아들인 구경모씨가 4.21%, 구분학 대표의 동생인 구분진 제니스 대표가 2.97%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쿠쿠사회복지재단도 1.8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쿠쿠홈시스를 지배하고 있는 쿠쿠홀딩스는 구분학 대표가 45.11%로 대주주이고 구분진(15.22%), 구경모(3.15%), 쿠쿠사회복지재단(1.37%) 순으로 지분이 많다. 노조에 따르면 구분학 대표가 지난해 쿠쿠홀딩스와 쿠쿠홈시스를 통해 받은 결산 배당금 총 303억 원에 이른다.

구분학 대표는 쿠쿠 창업주인 구자신 회장의 장남이다. 구 대표는 2023년 당시에는 가맹점에 대한 집단계약해지 및 갑질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서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

얼리버드 프로모션

구매 고객 전원에게 사은품 증정

귀뚜라미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2026년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4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창문형 에어컨 얼리버드 프로모션은 구매 이후 리뷰 참여에 따라 혜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객 참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탁상형 선풍기’ 1대를 증정한다. 여기에 리뷰 작성 고객에게는 ‘귀뚜라미 캐릭터 우산’과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Tall 쿠폰’을 제공하며, 포토리뷰 작성 시 ‘한국도자기 세트’를 추가 증정한다.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은 에너지효율 1등급의 ‘듀얼 인버터 압축기’를 적용해 효율적인 냉방이 가능하다. ‘에코 모드’ 사용 시 일반 냉방 대비 에너지 소비를 약 60% 줄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2026년 창문형 에어컨 ‘얼리버드 프로모션’.

SK네트웍스, 재무 안정 발판으로 AI 신사업 확장

SK일렉트릭 지분 변경 절차 마무리
민트 매각 등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차입금·부채비율 낮춰 재무안정 강화

SK네트웍스가 사업구조 최적화 및 효율적인 자본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SK일렉트릭에 대한 앵커에쿼티파트너스와의 지분 구조 변경 거래가 지난 13일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SK일렉트릭의 최대주주가 앵커에쿼티파트너스로 변경된 이후 추가적인 과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21.4%가 됐다.

이에 앞서 SK네트웍스는 지난 3월

자회사 민트 지분 90%를 450억원의 금액에 티엔케이 프라이빗에쿼티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반기 중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SK렌터카 지분 전체를 8200억에 매각했다. 무역사업을 전개하는 자회사 글로벌 와이드의 거래 품목을 수익성 높은 화학재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2024년 1조 7000억원에 달하던 매출이 지난해 6000억원 수준으로 줄기도 했다.

SK네트웍스는 이를 통해 대내외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강도 높은 사업 리밸런싱과 운영 최적화를 바탕으로 한 체질 개선을 이뤘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연결 기준 5조원대

였던 차입금은 지난해말 1조 8000억원대로 줄었으며, 320%가 넘는 부채비율 또한 150%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대대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SK네트웍스는 이와 같은 안정성에 기반해 AI 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주요 사업별 신규모델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SK인텔릭스는 AI 기반 헬니스로보틱스 브랜드인 ‘나무엑스’를 만들어 지난해 10월말 그랜드 론칭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피닉스랩이 개발한 제약산업 특화 AI 솔루션 케이론의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 및 판로 확보를 추진 중이다.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는 기업의 AX 도입에 필요한 AI Ready D

ata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인크로스에선 올해 AI 기반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 ‘스텔라이즈(Stellaize)’의 스타터 번들 패키지를 출시하고, AI 배너 제작 자동화 에이전트 ‘리사이즈애드’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AI 접목 사업모델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SK네트웍스는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에 추가 투자를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안정 없는 성장도 없다”며 “AI 전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생건의 상생, 中企 회복력 높이는 자산”

중기부, 용산 LG생건 본사에서 간담회

LG생활건강의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이 중동 전쟁으로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LG생활건강의 사례를 격려하는 한편 다른 기업과 업종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LG생건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LG생활건강이 보여준 상생 활동은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확산과 중동전

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G생건은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현재까지 15개 협력업체 59건의 계약에 대해 약 26억원의 대금을 인상한 바 있다. 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47개 협력업체 1만 6000여 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연내 최대 2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연동제 체결 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금을 인상하는 등 협력사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진정한 상생은 배려와 신뢰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한샘, ‘썸페스타’서 역대급 실적 달성

일평균 주문액 19% 늘어 전 부문 성장

한샘이 진행한 상반기 최대 규모 쇼핑 축제인 ‘썸페스타’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인기를 끌었다.

온라인 한샘몰의 구매전환율은 23% 늘었고 ‘리하우스’는 당월 계약·시공 매출이 72% 증가했다.

14일 한샘에 따르면 상반기 썸페스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행사와 비교해 일평균 주문액이 19% 늘었다. 부문별로는 리하우스와 홈퍼니싱, 온라인 한샘몰 모두 최근 2개년(2025~2026년) 내 월간 계약액의 최고치를 달성하며 전 사업 분야가 고르게 성장했다.

온라인 한샘몰은 구매전환율이 직전



썸페스타 매장 사진.

행사 대비 23% 증가하며 실구매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방문객 중 실제 결제까지 이어진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썸페스타의 혜택을 기다려온 대기 수요가 행사 시작과 동시에 ‘폭적형 구매’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김승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유니콘 기업의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기보는 14일 오후 경기 평택에 위치한 하이리움산업을 방문해 중동 지역 정세 급변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야기-예비유니콘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 실태 파악,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이리움산업을 액화수소 저장용기를 설계-제작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2024년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이후 매출 성장세를 이어왔다.

기보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입은 야기-예비유니콘 기업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중동 등 해외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릉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2조 규모’ 국가 GPU 사업… ‘네이버 vs KT’ 인프라 경쟁 압축

5곳 참가… 실제 경쟁은 ‘2과전’
네이버클라우드, 안정적 운영 역량
KT클라우드, 인프라·역량 결합 강점
엔비디아 GPU 확보 일정·비용 ‘변수’

2조원 규모의 국가 GPU 사업이 네이버와 KT 중심 구도로 압축되며 인프라 경쟁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마감된 GPU 확보·구축·운영지원 사업 공모에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 삼성SDS, 쿠팡, 엘리스그룹 등 5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총 2조800억원 규모로 최신 GPU를 대규모로 확보해 데이터센터에 구축하고 산학연에 공급하는 국가 AI 인프라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1조4000억원 규모 1차 사업에 이어 추가 투자를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네이버 vs KT’ 중심 구도…실질 경쟁 압축

이번 공모는 겉으로는 5과전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기부

실제 경쟁 구도는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 중심으로 압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클라우드지는 지난해 사업 수행 경험과 GPU 클러스터 운영 역량을 확보한 상태다. 데이터센터 확장과 복수 거점 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KT클라우드지는 최근 조직 개편 이후

공공·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며 이번 사업을 반전 계기로 삼고 있다. 통신 기반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을 결합한 구조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GPU 운영 경험과 데이터센터 확장 속도를 동시에 갖춘 사업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경쟁 구도가 자연스럽게 압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GPU를 확보하

는 것보다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역량이 핵심”이라며 “결국 네이버와 KT처럼 이미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경쟁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승부는 ‘데이터센터’…GPU보다 인프라

이번 사업은 단순 GPU 확보 경쟁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인프라 경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정부는 GPU 조달 능력뿐 아니라 ▲상면 확보 ▲전력 ▲냉각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기술까지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신 GPU는 수냉 기반 설비와 고하중 구조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 IDC로는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이미 인프라를 확보한 사업자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 사실상 데이터센터를 확보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는 메가존클라우드와 베스핀글로벌 등 MSP가 참여하지 않았다. GPU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구

조에서는 수익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은 네이버와 KT 등 CSP 중심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변수는 ‘GPU 수급’…환율·공급망 리스크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GPU 확보 일정과 비용을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환율 상승 영향으로 확보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GPU 확보 경쟁이 곧 사업 성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서류 검토와 발표 평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 연내 구축과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비 확보보다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운영 역량이 핵심”이라며 “결국 네이버와 KT 중심 경쟁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네카오, 광고 비수기에도 ‘최대 실적’ 전망

네이버, 1분기 매출 3.1조 예상
핵심 ‘커머스’… 반사수혜 등 영향도

카카오, 매출 2조·영업익 1753억
온디바이스 AI ‘카나나’ 전략 주목

네이버와 카카오가 광고 비수기인 1분기에도 나란히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커머스와 인공지능(AI)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흐름이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의 올해 1분기 매출은 3조1510억원, 영업이익은 5647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각각 약 13%, 12%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약 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가는 네이버 실적의 핵심으로 커머스를 꼽는다.

SK증권의 남효지 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경쟁사 고객 이탈에 따른 반사수혜로 멤버십 이용자와 쇼핑 거래액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네이버는 N배송 커버리지 확대와 무료배송·반품 등 이용자 혜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도입한 쇼핑 AI 에이전트도 상품 추천과 구매 전환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도 1분기 매출 2조91억원, 영업이익 1753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에 예상된다. 매출은 전년 대비 8%, 영업이익

은 66% 증가한 수치다. 그간 추진해 온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비용 효율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업계는 카카오의 AI 전략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정호윤 연구원은 “온디바이스 AI 모델인 카나나에 외부 서비스를 연동해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며 “활용성이 높아질 경우 수익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AI 서비스를 확대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화 속도는 향후 실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네이버는 오는 30일, 카카오는 내달 7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KT,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선포

월 5만원 대에 데이터 무제한까지

KT는 14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포함한 요금제 번들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요금제의 혜택을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로 개편한 것으로, 추가 요금 부담 없이 광고 없는 영상 시청에 초점을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월 8500원에 주요 동영상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프라인 저장과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유튜브 뮤직은 포함되지 않으며, 음악 콘텐츠나 쇼츠 이용 시 일부 기능 제한과 광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유튜브 뮤직 이용을 원



KT가 국내 최초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제품군을 출시해 모델이 소개하고 있다. /KT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특정 요금제에 선택요금 및 결합 할인을 적용하면 데이터 무제한과 함께 해당 서비스, 멤버십, 스마트기기 회선, 데이터세어링, 단말보험 할인 등의 혜택을 포함한 구성을 월 5만원대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LGU+ 유심 업데이트·교체 첫날 18.1만건 처리

LG유플러스는 13일 시작한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첫날 처리 건수가 총 18만1009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유심 업데이트는 9만5986건, 유심 교체는 8만5023건이다.

이번 조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심 업데이트 대상자는 ‘유플러스 원(U+one)’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 업데이트 또는 교체를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고령층과 군장병 등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김서현 기자

그라비티 ‘라그나로크’로 동남아 시장 공략

태국·필리핀 등 사전예약 동시 진행

그라비티의 홍콩 지사인 그라비티게임비전(GGV)이 오픈월드 MMORPG ‘라그나로크: 더 뉴 월드’(사진)의 동남아시아 지역 사전예약을 시작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전예약은 태국·필리핀·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용자는 공식 페이지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라그나로크: 더 뉴 월드는 라그나로크 IP 기반 첫 오픈월드 MMORPG로, 광활한 필드와 자유도 높은 플레이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비행 탈것 시스템을 도입해 미드가드 대륙을 공중 이동할 수 있으며, 제한 없는 전직과 자유로운



스킬 조합으로 이용자 맞춤형 플레이를 지원한다. 오프라인 자동 사냥 기능과 커플 시스템 실시간 노점상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등 생활형 콘텐츠도 대폭 강화했다.

앞서 해당 게임은 지난 1월 대만·홍콩·마카오 지역에 먼저 출시해 성과를 입증했다. 사전 다운로드 단계에서 애플 앱스토어 무료 인기 1위를 기록했으며, 출시 직후 최고 매출 1위를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최빛나 기자

웹젠, 인디게임 퍼블리싱 라인업 확대

‘메모리스: 포세이큰 바이 라이트’
턴제 전략 RPG, 오는 28일 출시

웹젠이 인디게임 퍼블리싱 라인업을 확대하며 신작 출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14일 웹젠은 턴(turn)제 전략 RPG ‘메모리스: 포세이큰 바이 라이트’를 오는 28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임은 국내 개발사 블랙앵커가 개발하고 웹젠이 퍼블리싱을 맡았다.

메모리스는 2023년 ‘르모어’라는 이름으로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얼리 액세스로 공개된 이후 약 2년간 게임성 개선 작업을 거쳤다.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세계관과 전투 시스템, 육성 구조 등 전반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렸으며 올해 2월 현재의 게임명으로 변경하

고 정식 출시를 준비했다.

게임은 픽셀 그래픽 기반의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다. 이용자는 ‘메모리스’를 복원하기 위한 원정에 나서며 제한된 규칙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생존과 탐험을 이어간다. 다양한 스킬과 무기 조합을 활용해 원정대를 육성하고 80여 개 지역을 탐색하는 구조다.

정식 출시 버전에서는 메인 퀘스트 분량을 대폭 확대하고 전술적 특성을 지닌 신규 캐릭터 4종을 추가한다. 글로벌 이용자를 겨냥해 영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총 8개 언어도 지원한다.

업계에서는 웹젠이 기존 온라인 게임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인디게임 퍼블리싱으로 장르 확장을 시도하는 행보로 보고 있다.

/최빛나 기자

“고유가가 바꾼 자금조달 환경… 투자 패러다임 전환”

인터뷰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부문 대표

“변화 속에서 버티는 구조 ‘핵심’ 이익 규모보다 성장 속도 관건 채권 비중 높이고 주식 혼합 중심”

“지금 시장은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가 바뀌고 있는 국면입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부문 대표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증시 변동성을 ‘이벤트’와 ‘구조 변화의 갈림길’로 규정했다.

그는 “휴전이나 종전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고유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냐”라며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 되면 기업의 비용 구조를 넘어 자금조달 환경까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여년간 거시경제와 자산배분을 연구해온 박 대표는 3월부터 리서치센터장에서 투자전략부문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분석 중심의 역할에서 상품과 자금 흐름을 다루는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제는 숫자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 실제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더 많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고유가가 흔드는 시장… ‘핵심은 자금 흐름의 변화’

박희찬 대표는 이번 장세를 단순한 변동성 국면으로 보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전쟁과 유가 상승이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본질은 ‘자금조달 환경 변화’에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그동안 시장은 환율이 내려가고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을 전제로 움직여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전제가 깨지면서 자금조달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가 기대만큼 내려오지 않으면 크레딧 리스크가 커지고, 회사채 발행이나 투자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나 자본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는 특정 자산군에 국한되지 않는다. 박 대표는 “사모신용 시장에서 나타나는 긴장감이 AI 투자 자금, 나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금 흐름이 약해지면 투자 규모뿐 아니라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부문 대표

/미래에셋증권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이익이 좋고 실적이 나오는 것과 주가가 오르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시장 기대 대비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 밸류에이션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아니라 ‘증가 속도’”라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긍정과 한계를 동시에 언급했다. 박 대표는 “예금에서 투자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 이른바 머니무브는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난 구조적 변화”라

면서 “다만 이 흐름에는 포모(FOMO·기회상실공포) 성격이 섞여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수급 역시 “큰 흐름에서는 이탈이 시작된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수익보다 구조”…채권·자산조합 재설계 필요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박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버티는 구조’다.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보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판

단이다.

그는 “투자 자산이 특정 국가나 자산군에 과도하게 쏠려 있으면 시장이 꺾일 때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된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적절히 분산된 구조를 가져가야 전체 포트폴리오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권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라진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는 채권의 매력에 떨어진다”고 봤지만, 지금은 금리와 재정 환경을 고려하면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채권 비중을 일정 수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형태의 전략이나 상품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 하방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끝으로 “지금 시장은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구간”이라며 “투자의 본질은 결국 균형과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정은보 “육천피시대, 자본시장 체질 개선중”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생태계 50조 투자

<한국거래소 이사장>

ROE·PBR 등 주요 지표 개선 상장사 지배구조 ‘의무공시’ 확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코스피 6000 시대’를 두고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4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CGN 코리아 컨퍼런스 2026’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자본 시장의 체질 개선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국내 증시에 대해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6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지표도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ICGN과 공동으로 개최한 ‘ICGN Korea Conference 2026’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며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의무공시가 전면 확대된 점을 짚었다. 그는 “2017년 자율공시 방식으로 기업 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공시 범위를 확대해왔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배구조 의무공시 대상이 코스피 전 상장사로 전면 확대돼 기업의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융위, 바이오·미래형 모빌리티 등 장기·대규모 ‘인내자본’ 중심 투자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바이오·디스플레이·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인내자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며 “첨단산업 투자전쟁과 에너지전환 국면에서 적시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는 단일 산업

/허정윤 기자

이 아닌 첨단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겨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바이오·디스플레이·미래형 모빌리티·소버린 AI·재생에너지·새만금첨단밸트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0조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민관합동펀드 35조원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조성해 ‘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 역할을 맡기고, 직접투자 15조원은 대규모 설비·양산 자금 등 전략 영역에 집중 투입한다.

투자 방식도 변화한다. 기존 정책펀드가 단기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되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대규모 ‘인내자본’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초장기 기술투자, 스케일업 펀드, M&A 및 코스타 투자 지원 등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전면 점검

주주권 행사 책임 강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주주권의 보호와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주주권 강화 흐름 속에서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형식적 의결권 행사와 부실 공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자본시장법 제87조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2023년 10월),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왔다. 올해는 기존 공시 점검에 더해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2025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약 500여사를 대상

으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 사유의 충실한 기재 여부, 내부 지침 공시 여부, 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등 형식적인 사유를 기재하거나 의결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사례는 미흡 사례로 판단한다. 반면 안전별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모범 사례로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모운용사 77개사를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별도로 점검한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ELW 461종목 신규 상장

지수형 39종·종목형 422종 구성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위험트증권(ELW) 461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39종목과 삼성전자, LG넥스원, 삼성중공업, 한화에너지스페이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422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만기 시 원금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추락사고 줄며 산재사망 '역대 최저'... 건설업 안전지표 개선

고용부,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
건설업 사망자 39명으로 45% ↓
제조업은 대전 화재사고로 증가
위기의식·예방 정책 맞물린 결과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특히 산재 취약 분야였던 건설업 내 '추락 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전체적인 감소세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명)보다 24명(17.5%) 감소



했다. 사고 건수 또한 98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건(2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명(45.1%) 급감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떨어

짐(추락)' 사고 사망자가 31명에 그치며 지난해(62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59명으로 전년 대비 28.9%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서도 사망자가 15명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안전 지표가 개선됐다.

반면 제조업은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20일 대전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집중된 탓이다. 이 영향으로 제조업 사망자는 52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3명(79.3%)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소세에 대해 정부의 예방 중심 정책과 현장의 안전의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부터 산업안전감독관,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산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노사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원칙을 지킨다면 감소 추세가 지속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성과에 대해

서도 "지난해부터 건설업이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사망이 늘었는데, 추락사고만은 막아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예방 중심 정책과 안전의식 제고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분기의 감소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산재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약 10만 개소를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 전수조사와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붕 및 태양광 공사 등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은 지방정부와 정보를 공유해 밀착 감시하고, 제조업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 위험 사업장 39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긴급 점검 및 기화감 독을 진행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농협, 농가 260만 명 일손 보태기 '시동'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
유휴인력 연계 도농 이음사업도 추진

농협중앙회가 올해 영농인력 260만 명의 농가 공급을 추진한다. 농협은 지난 13일 경남 새남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6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영농철 도래를 알리고, 범국민적 농촌일손돕기 참여 확산을 다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유·무상 영농인력 260만 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도형 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인력풀을 공유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 은퇴자와 전업주부 등 유휴인력을 도시농협을 통해 모집·연계하는 '농협 도농인력 이음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발대식에는 강호동 회장을 비롯해 범농협 임직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장재



강호동(앞줄 가운데) 회장 등 농협 임직원들이 13일 경남 함천의 한 농가를 찾아 마늘밭에 비료를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

혁 함천군 부군수, 정봉훈 함천군의회의장, 무학·몽고식품 임직원, 경상국립대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이후 경남 함천의 한 농가를 찾아 마늘밭 비료 시비, 레드향 가지치기 등 일손돕기 활동을 벌였다.

농협은 또 '농심천심(農心天心)' 임직원 자율참여형 농촌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법무부와 협력한 사회봉사명령자 영농지원, 보라미봉사단 활용사업 등

무상 영농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수해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에도 범농협 역량을 집중한다.

강호동 회장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촌일손돕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고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농협은 인건비와 영농자재비 상승,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단속

권익위, 내달 13일까지 신고기간
민생 위기 극복 대응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고유가를 이유로 생필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

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신분보호 등 보호조치를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정부 수입 회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유가로 고통받는 산업현장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종 소상공인을,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과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부발전-보령시, 상생 에너지 모델 구축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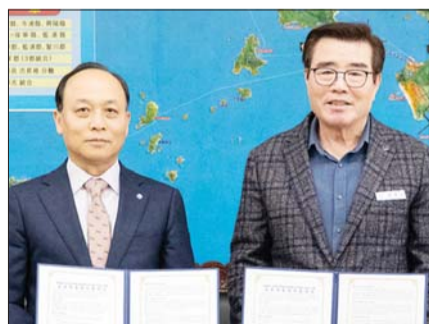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지난 13일 보령시청에서 보령시와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설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에 발맞춰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과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주민 수익 공유 ▲지역 기업 참여 확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공공자산인 주차장을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해 주민 수익 보장, 일자리 창출, 지역 자금 순환이라는 3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해 실질적인 가계 소득에 기여하고, 시설 건설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지역을 인력 채용 일자리를 늘린다. 또 지역 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왼쪽)과 김동일 보령시장(오른쪽)이 지난 13일 보령시청에서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설치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발전

축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중부발전은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재원 조달, 향후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주민과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농식품창업 과정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이 '농식품창업 아이디어 실현' 과정 교육생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농특산물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과정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창의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농식품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선 ▲창업기업 선배와의 대화

▲상품기획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소자본 창업을 위한 지역농산물 브랜드 SNS 마케팅 등의 실무중심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이달 21~23일 사흘간 경기 수원소재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15일까지 가능하다.

aT는 또 오는 8월 27~28일 기간 '농식품창업 사례분석과 아이디어 도출' 과정이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8월 중순까지 신청 받는다.

오창준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소자본 농식품 창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학력·AI·돌봄까지... 부산시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총력

‘교육격차해소 종합계획’ 시행
디지털·과학 등에 5239억 투입
유연한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부산 모든 학생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원도심 및 작은학교 등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346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전년 대비 49개 사업과 724억원이 확대된 총 5239억원 규모로 12개 영역 137개 세부 사업을 담았다. 12개 영역은 ▲학력신장 ▲과학·융합 ▲디지털·AI ▲인성 ▲문화·예술 ▲진로·진학 ▲방과후·돌봄 ▲교육복지 ▲교원인사 ▲인력지원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교육 등이다.

특히 학력신장 분야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BE-Talk', 중·고교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 학교급 전환 기인 초·중·고 대상 '점프업 윈터스쿨' 등 학생 맞춤형 사업을 운영해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AI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현장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학생들의 인공지능(AI) 기기 활용 능력을 밀착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적을 돕는다.

또 학교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미래형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등 10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집중 관리 대상 학교에 대한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최근 3년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대한 분석과 누적 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도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보성군

‘보성다향대축제’ 내달 1일 개최

보성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대한민국 대표 차(茶) 문화관광축제인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를 주제로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서상균)가 주관하며, 전통 차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 체험형·참여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말차'를 핵심 키워드로 전면에 내세워 젊은 세대와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구미시

관광지 인증 스탬프 투어 운영

구미시가 관광지 방문 인증을 통해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단순 방문을 넘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은 '2026년 구미 모바일 스탬프 투어'로, 4월부터 11월까지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는 4월 15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용자는 'K-스탬프투어' 앱을 활용해 관광지를 방문하면 GPS 기반으로 자동 인증을 받고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울산시, 고유가 위기 극복에 284억 투입

정부 지원 사각지대, 시비로 부담
소상공인·중기 등 자체 지원 강화

울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국회에서의 결된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해,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울산시 자체 재원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산시는 지방비 부담분 284억원을 100% 시비로 부담하고, 고유가 대응 자체 특화 사업 442억원을 추경에 별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취약계층 최대 60만원까지 울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421억원이며 울산시가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시비로 편성함에 따라 구군의 별도 재정 부담은 없게 된다.

정부 추경이 소득 하위 70% 지원에

집중되는 만큼, 울산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농어업인 등을 위한 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1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하고, 대출 이자 일부(1.2~2.5%)를 지원하는 이자 보전 사업에 62억원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40억원을 추가 적립해 총 8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울산페이 발행 지원에 114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캐시백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꾀한다.

화물업계와 시내버스에는 유가 보조 및 재정지원으로 각각 100억원씩 추가 편성하고, 농어업인에게는 면세 유인상분의 30%를 한시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냉난방기 교체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유튜브 한시 지원,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지원 등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담겼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모습.

/전남도

전남, 여수서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연다

20~22일 탄소중립 흐름 공유

전남도는 기후환경·에너지산업의 미래와 탄소중립 전환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2026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KEET)'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GX Week)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을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비즈니스

스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을 앞둔 시점에 열려 기후환경·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전남광주특별시의 산업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환경신기술 ▲자원순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에너지 ▲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창원시, 전기연구원과 캠퍼스 조성 협약

산·학·연·관 연계 개방형 캠퍼스



창원시와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13일 창원시청에서 'KERI 개방형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

창원시와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13일 창원시청에서 'KERI 개방형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KERI는 미래 성장 전략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개방형 제2캠퍼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제2캠퍼스는 AI와 전력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의 연구 협업부터 실증·인증, 인재 양성까지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원시 관내 제2캠퍼스 부지 선정을 추진하

고, ▲정부 지원 사업 유치 및 정책 과제 대응 ▲기업 지원 및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캠퍼스는 부지 선정 이후 단기·중기·장기 단계로 순차 추진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 'K리그 이스포츠 대회' 사전 행사 돌입

개막전·부트캠프 등 열려

오는 24일 개막하는 '2026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경상남도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18일부터 다양한 사전 행사를 잇달아 펼친다.

행사는 18일부터 26일까지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과 진주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대회 개막 전후로 프로그램을 촘촘히 배치해 관광객 유입과 현장 열기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첫 일정은 18~19일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개막전이다. 전국 지역 연고 팀 선수단 96명이 참가해 경쟁을 벌인다.

같은 기간인 18~22일에는 게임중독 사범블뉴런 주관의 '이더널 리턴 부트캠프'가 열린다. 중국·일본·베트남 등 4개국 선수단 30여명이 참가해 맞춤형 훈련과 합동 연습경기로 실전 감각을 점검하며 진주시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국가 간 교류를 다진다.

/경남=손병호 기자

하동군

알림톡으로 체납세 징수 해결

하동군이 카카오톡 알림톡 기반 체납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징수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체납세 1566건, 총 1억 3800만원이 납부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납부 건수는 53.4%, 납부 금액은 66.3% 늘어난 수치다. 하동군은 모바일 기반 안내 방식 전환으로 체납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돼 자진 납부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동(경남)=이도석 기자

지마켓, 거래액·객단가 뛰었다 직접방문 증가에 회복세 뚜렷

GMV 12% 늘고 객단가 10% 상승
구매전환율 오르고 등록셀러 증가
라자다 연동효과 등에 성장 가속
23일 새 멤버십 출시, 재도약 기대감

지마켓의 핵심 거래 지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플랫폼 내 자생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지마켓은 3월 주요 지표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14일 밝혔다. 평균 객단가와 거래액(GMV), 직접 방문 거래액이 함께 늘며 회복 흐름이 뚜렷해진 것.

지마켓은 지난해 미디어데이에서 5년 내 GMV를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26년을 재도약 원년으로 제시했다. 올해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객단가와 거래액이 동시에 증가하며 계획 이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3월 평균 객단가는 전년 대비 10% 늘었고, GMV는 12% 증가했다. 1월과 2월에 소폭 반등했던 거래액이 3월 들어 증가 폭을 키운 모습이다.

특히 고무적인 건 지마켓 홈페이지나 앱을 바로 방문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직접방문 GMV'가 3월에 13% 늘어난 것이다. 가격 비교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지마켓에 들어오는 게 아닌 바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그만큼 충성고객이 늘어났다고 볼 수

지마켓 주요 실적 지표

2026년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거래액(GMV) +12%

신규 셀러 수 +3.6만명

평균 구매객단가 +10%

글로벌(라자다) 판매액 +150%
*2026년 1월 대비

자료/지마켓

해외 판매 연계도 성장세다. 지마켓은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라자다와 연동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에 국내 셀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3월 라자다를 통한 판매액은 두 달 전보다 약 150% 증가했다. 라자다의 3월 할인 행사 기간에는 연동 이후 최대 GMV를 기록했다.

지마켓은 연내 라자다 연동 상품 수를 연초 대비 2.5배로 확대하고, 향후 동남아 외 지역으로도 판매 국가를 넓힐 계획이다.

이달 23일 론칭하는 새로운 멤버십 '꼭'도 플랫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멤버십 회원에게는 월 최대 7만원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SSG닷컴과 동시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플랫폼 각각에서 1000원씩 캐시백을 받는다. 월 회비 2900원인 양사 멤버십을 각각 1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개 멤버십을 합쳐 3800원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제임스 장 지마켓 대표는 "국내 1등 오픈마켓으로 올라서기 위해 올해와 내년 양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2028년부터는 수익 창출도 본격 실현하겠다"며 "고객과 셀러 모두 가장 신뢰하는 플랫폼이란 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KGC, 온오프라인 참여형 마케팅 확대

키즈 브랜드 SNS 챌린지 참여 유도
스포츠 현장·매장서 프로그램 운영

KGC인삼공사가 SNS, 스포츠 행사,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제품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점점을 늘리는 방식이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키즈 녹용 브랜드 천녹 그로잉 키즈 관련 SNS 캠페인 '완박송 챌린지'를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운동을 따라하며 참여하는 형식으로, 육아 과정에서 겪는 식사 거부 상황을 소재로 구성했다. 브랜드 메시지를 놀이형 콘텐츠에 결합한 사례다.

스포츠 현장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지난 3월 프로농구단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홈경기에서 '브랜드데이'를 열고, 경기장 외부에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발판 스태퍼를 활용한 'GLPro 헬

당 제로 챌린지' 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목표 달성 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광객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별도로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배드민턴 대회도 개최하며 스포츠 기반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개헌 본점'에는 인바디 측정이 가능한 '헬스스캔존'을 설치해 방문객이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속혈당 측정 체험, 건강강연, 구독형 음료 프로그램 등 매장에서 체류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했다.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체험 중심 공간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KGC는 이 같은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다변화하고, 매장과 브랜드 경험을 연결하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토이 스토리 테마상품 선보여

오늘부터 음료·푸드·굿즈 출시
영화 개봉 앞두고 한정 행사 진행

스타벅스코리아가 4월 15일부터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토이 스토리 테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협업은 6월 개봉 예정인 토이 스토리 5에 앞서 한국 매장에서만 운영된다. 테마 음료, 푸드, 굿즈와 함께 한시적 프로모션이 포함된다.

협업 음료는 3종이다. '우디 카우보이 쿠키 월드 브루', '제시 슈트로베리 프라푸치노', '버즈 키위 팝 에너지 피지오'로, 캐릭터 콘셉트를 반영한 토핑과 재료 구성이 특징이다. 에너지 피지오에는 타우린 1179mg, 비타민C 84mg이 포함됐다.

푸드는 캐릭터 형태를 반영한 제품으로 구성했다. '버즈 케이크', '슬링키 쥘릿 소시지 브레드', '포키 헤이즐넛 마카롱', '알틴 피스타치오 마카롱' 등을 선보인다.

굿즈로는 '토이 스토리 우디&제시



스타벅스가 '토이 스토리'의 대표 캐릭터인 우디, 버즈, 제시에서 영감을 얻은 음료부터 캐릭터의 특징이 담긴 푸드와 굿즈를 출시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머그 세트', '토이 스토리 키체인' 4종 등을 출시한다. 일부 텀블러와 머그에는 토이 스토리 스티커가 랜덤으로 포함된다.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스타벅스 카드로 신규 유료 및 버즈 케이크를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면 품목당 별 3개를 추가 적립한다. 22일에는 이벤트 음료 7종 중 1잔을 포함해 2만원 이상 구매 시 토이 스토리 야광 스티커를 선착순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파리바게뜨

“찰쌀로 쫄득함 UP”
겉바속쫄 ‘버터쫄떡’
진한 버터 풍미에 은은한 단맛

파리바게뜨가 버터의 풍미와 쫄득한 식감을 담은 '버터쫄떡' (사진)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버터떡'에서 착안해 '겉바속쫄(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득)' 식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파리바게뜨 '버터쫄떡'은 고소한 버터와 찰쌀을 활용해 바삭한 겉면과 쫄득한 떡 식감을 살렸다. 입안 가득 퍼지는 버터의 고소한 풍미와 은은한 단맛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빅사이즈 모양으로 만들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재미를 더했다.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최근 디저트 업계에서 주목받은 버터떡을 파리바게뜨만의 스타일로 선보였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에 문을 연 라코스테 메가샵 모습.

신세계百貨, '메가샵 전략' 성과 중소형 점포 경쟁력 키웠다

김해 라코스테, 통합 후 매출 1.5배
센텀 스케쳐스, 일주일새 월매출 달성
2년간 23곳 출점, 동일면적 매출 70% ↑

신세계백화점은 중소형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메가샵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김해점 라코스테와 센텀시티점 스케쳐스는 메가샵 전환 이후 매출과 객단가가 동시에 크게 늘며 성공적 오픈을 알렸다.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라코스테는 기존 남성·여성 두 개 매장을 하나로 통합해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재구성한 '메가샵'이다. 올해 3월 오픈 한 달 만에 기존 대비 매출이 1.5배로 뛰었고, 객단가 역시 40% 가까이 상승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메가샵은 다양한 상품군을 한 공간에 구성해 연관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구조를 갖

추고 있다. 고객이 의류와 슈즈, 액세서리 등을 한 번에 비교·체험하는 과정에서 구매 품목이 늘어나고, 이는 객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로 연결된다.

센텀시티점에 들어선 스케쳐스 메가샵 역시 성과가 뚜렷하다. 올해 4월 초 135평 규모로 조성된 이 매장은 러닝, 골프, 피클볼 등 스포츠 라인과 키즈까지 아우르는 토탈 매장으로, 오픈 일주일 만에 기존 매장의 한 달 매출을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24년과 25년 두 해 동안 총 23개의 메가샵을 오픈했으며, 이들 매장은 동일 공간 기준 매출이 평균 70% 이상 증가하는 등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메가샵 전략은 브랜드 수를 늘리는 대신 '잘 되는 브랜드를 크게 키우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신세계푸드, '미니 케이크' 성장세 확대

1만원 이하 이마트 베이커리 매출 견인

홈카페·홈디저트 문화 확산과 함께 케이크 소비가 생일·기념일 중심의 시즌성 수요에서 일상 소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4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지난해 이마트 베이커리의 케이크 매출은 2024년 대비 24% 증가했다. 특히 전체 케이크 매출 성장을 이끈 것은 1만원 이하의 미니 케이크였다. 지난해 미니 케이크 매출은 2024년보다 78% 늘어나며, 가정의 달이나 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즌에 수요가 집중되는 홈케이크의 매출 성장률(6%)보다 12배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신세계푸드는 이 같은 성장 배경으로 1

~2인 가구 증가, 홈카페 문화 확산, 가성비 소비 트렌드에 따른 소용량 디저트 수요 확대를 꼽았다. 과거 케이크가 생일, 기념일, 연말 행사 등 축하를 위한 제품으로 인식됐다면, 최근에는 집에서 커피와 함께 부담 없이 즐기는 일상형 디저트로 소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맞춰 신세계푸드는 이마트 베이커리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미니 케이크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 상품은 9980원 가격대의 '떠먹는 케이크' 시리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말 딸기, 타피마수, 오레오, 꿀, 고구마 등 5가지 맛의 '떠먹는 케이크'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지역 특산물과 제철 과일을 활용한 신제품 확대에 나섰다. /신원선 기자

화장품 1조클럽 속출... K-뷰티 신흥강자, 글로벌 질주

뉴 K-뷰티 삼두마차

에이피알과 구다이글로벌, 달바가 뉴 K뷰티의 삼두마차를 형성하며 질주하고 있다.

올해 상장 3년 차를 맞은 에이피알과 기업공개(IPO)를 앞둔 구다이글로벌이 1조원대의 연 매출을 달성하며 K뷰티 메가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상장에 성공한 달바 역시 성장세에 있다.

기업공개 앞둔 '구다이글로벌' 매출 294%, 영업이익 98% 급증 티엠뷰티가 전체 실적 견인

에이피알 '메디큐브' 매출 1조 '에이지알' 뷰티디바이스 4069억

1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구다이글로벌은 2025년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액 1조4718억원, 영업이익 273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94%, 영업이익은 98% 급증한 규모다. 메이크업 브랜드 티르티르,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 1세대 뷰티 브랜드 스킨푸드 등 유망 중소브랜드를 잇달아 인수하며 사세를 확장한 성과다.

구다이글로벌이 공시한 연결감사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열린 틱톡샵 행사에 K뷰티 부스가 설치됐다. /스킨1004

고서를 종속 기업별로 살펴보면, 티엠뷰티가 매출 6780억원, 당기순이익 389억 원을 올리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티르티르는 2291억원의 매출과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번 구다이글로벌 실적은 각 브랜드 인수 시점 이후 실적만 반영된 수치다.

티엠뷰티는 구다이글로벌이 크레이버코퍼레이션을 인수하기 위한 설립한 중간 법인이다. 특히 크레이버코퍼레이션은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를 운영하고 있다.

스킨1004의 경우, 미국은 물론 유럽 등 글로벌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

지난해 상장한 '달바'도 성장세 올해 실적 목표, 매출 7000억 해외 비중 70%, B2B 40% 중점

난 12일에는 미국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인근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현지 소비자를 공략했다. 해당 행사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틱톡샵이 주최한 것으로 200여 명의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했다.

스킨1004는 여름을 앞두고 열린 행사에 맞춰 무더운 야외 환경에서 메이크업 완성도를 높여주는 K스킨케어를 제

안했다. 지난해 11월 일반의약품(OTC) 인증을 획득한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 핏 선크림' 등 브랜드 대표제품을 선보였다.

구다이글로벌 측은 "각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수익 구조 다각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이후 코스피 시장 입성을 목표로 기업공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4년 기업공개로 올해 상장 3년 차에 접어든 에이피알은 단일 브랜드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해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만으로 화장품 사업에서 1조 77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218% 대폭 증가한 규모다. 또 뷰티 디바이스 사업으로는 4069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30% 늘었다.

가장 기초 단계에서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고도화해 최근에는 콜라겐, PDRN 등 차세대 성분을 결합한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PDRN 제품군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올해 2월 5000만 개를 돌파했다. 2024년 6월 첫 출시 후 약 20개월 만의 기록이다. 2025년 7월 누적 판매 1500만 개를 기록하면서 이후 7개월 만에 약

233%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을 통해 스킨케어의 효능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친다. K뷰티 정체성에 뷰티테크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기준 에이피알의 국내의 누적 판매량은 600만대 수준이다.

제2의 에이피알로 지난해 상장에 성공한 달바 역시 성장세에 있다.

달바는 지난해 연간 매출 5198억원, 영업이익 1011억원, 영업이익률 19% 등으로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8%, 영업이익은 69% 증가했다. 올해는 실적 목표치는 매출 7000억원, 영업이익률 21%다. 해외 매출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B2B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인도, 중동, 남미 등 3개 신규 전략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채용과 인프라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형 브랜드 기업에 이어 신흥 브랜드가 IPO에 나서고 있고, 이후 성공세가 안정적인 케도에 들어선다면 또 다른 차원의 산업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CJ올리브영,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도입

MD·마케팅 담당자, AI 도구 직접 구축 매장 진열·재고 현황 실시간 파악 국가별 언어·고객 맞춤 상품정보 제공

CJ올리브영이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전 구성원의 업무 환경에 구글 클라우드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최근 유통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개인화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이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인공지능(AI) 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도

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올리브영은 우선 업무 전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구성원 누구나 업무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비개발 직군인 상품기획자(MD)나 마케팅 담당자도 인공지능 도구를 직접 구축해,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시장 조사, 고객 데이터 분석 등에 적용한다.

매장에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인공지능으로 매장 진열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운영 방식을 고도화한다.

올리브영은 향후 물류 네트워크 등에도 인공지능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국가별 언어 환경과 고객 특성에 맞춘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구성원 개개인의 AI 활용 역량을 높여 조직 전반에 AI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들의 경험을 지속 고도화하며 K뷰티 대표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파마리서치, 통합 메디컬 에스테틱 제시

'ASLS 코리아 2026' 참가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는 지난 11~12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마용성형레이저의학회마용의료기기 박람회 및 춘계학술대회(ASLS 코리아 2026)'에 참가해, 부스 운영과 학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의료진이 모여 미용의학 분야의 최신 기술, 임상 경험, 시술 트렌드 등을 공유하는 학술행사다.

파마리서치는 주요 메디컬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통합적으로 선보였다. 현



지난 11~12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ASLS 코리아 2026' 현장 내 파마리서치 부스 전경. /파마리서치

장에서 대표 품목인 리쥬란을 비롯해 PLLA(폴리락티드) 기반 바이오스티물레이터 에버클, HA(히알루론산) 필러 리쥬비엘 등을 소개하며 폭넓은 미용의학 솔루션을 제안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1.8조 주식 소각... 창립 來 '역대최대' 규모

총 발행 주식수 3.94% 수준 주주에 주당순이익 개선 효과

셀트리온은 창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13일 변경상장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에 최종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911만주는 셀트리온 보유 자사주의 약 74%, 총 발행 주식수의 3.9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액수로는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782억원 규모로, 2024년(약 7013억원)과 2025년(약 8950억원)의 자사주 소각 규모 합산액을 뛰어 넘는다.

특히 이번 소각 자사주는 당초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으

로 보유하려 했던 약 300만주까지 포함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가능한 모든 물량을 소각에 투입했다. 향후 스톡옵션 보상은 필요시 신주 발행 방식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셀트리온의 주주들은 주당순이익(EPS) 개선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전체 이익은 동일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어 따라 주당 배되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주가수익비율(PER) 등 주요 투자 지표가 조정돼 주요 투자자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4조1625억원, 영업이익 1조1685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37.5%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회사는 올해 매출액 약 5.3조 원, 영업이익 1.8조 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소각 후 남은 자사주 약 323만 주는 향후 글로벌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본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단순히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여준다는 시장과의 약속을 완결한 것"이라며 "역대급 대규모 소각으로 인한 투자 지표 개선과 올해 본격화될 실적 성장 시너지를 내면서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지씨셀, '부패방지·준법 경영' 인증 유지

검체검사 분야서 유지 유일 사례

지씨셀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 37001'과 준법 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한국준법진흥원에서 갱신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2023년 최초 취득 이후 운영 체계를 유지·고도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글로벌 기준이다. 기업이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범을 기반으로 부패 및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이다. 한국준법진흥원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왼쪽부터)김재왕 지씨셀 대표, 이용기 한국준법진흥원장, 원성용 지씨셀 대표 등이 규범준수·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GC녹십자그룹

지씨셀은 제약·바이오 사업 전반에서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고 검체검사 분야에서는 ISO 37001과 ISO 37301 통합 인증을 갱신까지 유지한 유일한 사례다.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준법경영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청하 기자

LOTTERIA™

AI 시로 생성한 콘텐츠



SEOUL STATION
 서울역 전용
 기차 패키지
 EXCLUSIVE

기차에서 간편하게 불갈비버거

소갈비살패티로 쫄깃한 고기식감 UP!

단품 6,800원 세트 8,800원

영양성분표

세트메뉴 : 선택 디저트, 음료에 따라 영양성분 상이 알레르기 유발 안내

원산지

버거메뉴	총중량(g)	열량(kcal)	단백질(g)	나트륨(mg)	당류(g)	포화지방(g)	버거세트메뉴	열량(kcal)	불갈비버거	달걀, 밀, 대두, 우유, 쇠고기	쇠고기(호주산)
불갈비버거	182	467	19(35%)	870(44%)	13	10.0(67%)	불갈비버거 세트	579 kcal ~ 1,264 kcal			

메뉴 구성에 따라 알레르기 성분이 다르므로, 각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을 확인 바랍니다. 각 제품은 원재료의 수급 상황에 따라 구성 성분 및 원산지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영양성분은 1회 제공량 기준이며, 당사 표준 레시피에 따른 제품의 영양성분으로 실제 제공된 제품의 영양성분과 중량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영양표는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영양 정보를 포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영양성분은 실험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부산은행, 중소기업 대출사업 MOU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이 지난 13일 중소기업 공동대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따라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공동대출 상품 출시, 금융지원 확대, 금융 서비스 출시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오른쪽)와 부산은행 김성주 은행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한국씨티은행, 청소년 금융교실 프로그램 후원

한국씨티은행은 한국YWCA연합회와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 후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후원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왼쪽)과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일동후디스 하이문, FC서울 공식 스폰서십 체결

일동후디스 하이문이 14일 국내 프로축구 FC서울과 3년 연속 공식 스폰서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FC서울의 공식 단백질 스폰서로 활약한 일동후디스는 올해도 1등 단백질 하이문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을 지원하며, 선수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 관리를 돕는 파트너 역할을 이어간다. /일동후디스



오비맥주, '생맥주 관리자' 자격 제도 운영

오비맥주가 '생맥주 관리자(Master Draft Manager, MDM)' 자격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맥주 품질관리 교육과 기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온 키노콘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오비맥주는 키노콘의 관리 체계에 자사 품질 관리 기준을 반영해 매장에서의 생맥주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비맥주

인사

- ◆한미반도체 ◇부회장 승진 △김민현
- ◆오름테라퓨틱 ◇이사 선임 △마리아 콜러 △제프 마이어슨
- ◆휴온스바이오파마 ◇대표 선임 △이정희

부음

▲정수일씨 별세, 이정성(신라젠 이사)씨 장인상 = 동국대 경주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6일. 054-770-8198

SK그룹, 창업세대 AI 재현... “패기·지성’ DNA 계승”

**최태원 회장, AI영상 제작 제안
그룹 성장과정·경영 철학 담겨**

“젯더미 밖에 안 남은 공장을 보고 다들 끝났다고 했어. 세상 사는 데 쉬운 일이 있나? 경영도 늘 마찬가지였지. 하지만 기회 앞에서는 망설이지 않았어.”(고 최종건 SK그룹 창업회장)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기업가라면 늘 10년을 내다봐야 해. 우리 안에 있는 원칙과 기준, 그걸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 쓰는 거야”(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1970년~1990년대 한국 경제 성장기를 이끈 SK그룹의 두 창업세대의 경영 철학 등을 인공지능(AI)으로 재현한 영상이 세상에 나왔다.

SK그룹은 최종건(1926~1973) 창업회장, 최종현(1929~1998) 선대회장이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5분 분량의 AI 제작 영상을 13일부터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1층 미디어월(전광판)을 통해 상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올해로 창립 73주년을 맞아 제작됐으며 두 회장이 6·25 전쟁으로 젯더미가 된 선경직물을 지난



SK그룹 창립 73주년을 맞아 제작된 영상에서 인공지능(AI)으로 재현된 최종건 창업회장(왼쪽)과 최종현 선대회장. /SK그룹

1953년 재건하는 것에서 시작, SK그룹의 성장 과정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 창업회장은 ‘구부러진 것은 펴고 끊어진 것은 연결하고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운다’는 창업의 초심 속에서 1958년 나일론 생산 결단과 닭표 안감의 흥행, 워커히호텔 인수로 이어진 성장의 역사에 대해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하면 된다는 게 내 신념”이라고 말한다.

1973년 최 창업회장의 타계로 경영을 이어간 동생 최 선대회장은 “선경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

직계열화를 결심하고 달성한 과정을 회고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최 선대회장은 “모두가 ‘눈에 잡히지 않는다’, ‘미래가 먼 얘기다’며 망설였지만 기업가라면 10년을 내다봐야 한다”며 오늘날 SK그룹 정보통신 기술(ICT) 역량의 근간이 된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도 영상에서 회고한다.

SK그룹은 1994년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공개입찰에서 시장가보다 4배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인수에 성공하며 오늘날 SK텔레콤, S

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기틀을 닦았다.

영상 말미에는 “두 분에게 물려받은 치열함과 고귀한 정신, 단단한 저력으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새 역사를 써 내려가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022년 창립기념일 기념사가 함께 담겼다. 이번 AI 영상은 최태원 회장이 “AI를 활용해 SK그룹 창업세대가 간직한 패기와 지성의 DNA를 구성원과 나누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만들어졌다.

과거 발간된 SK그룹 사사(社史), 선대회장의 저서, 지난해 디지털로 복원된 육성 녹음 테이프 3000여 건으로 구성된 ‘선경실록’ 등 사료 전체를 AI가 학습하고 이야기를 구성하며 스스로 영상을 제작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창업과 석유, 이동통신, 반도체로 이어진 그룹의 성장 역사가 AI로 이어지는 시점”이라며 “창업세대의 유산인 ‘패기’와 ‘지성’이라는 초심과 메시지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나침반이자 지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KT, 협력사 경쟁력 강화 팔 걷어

파트너스데이 2026

협력 추진방향 ‘본질·성장·상생’
품질·기술 중심 구조전환 방침

KT는 14일 서울 소피텔 엠베서더에서 협력사와의 성과 공유 및 협력 방향 논의를 위한 ‘KT 파트너스데이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T와 협력사가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협력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T는 올해 협력 추진 방향으로 ‘본질·성장·상생’을 제시하고, 가격 중심 경쟁에서 품질과 기술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품질 우수 협력사에는 물량 배정 우대와 다년 계약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장비 도입부터 운영·폐기까지 전 과정의 보안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력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자체 자원과 민관



KT 박윤영 대표가 KT 파트너스데이에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KT

공동재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판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공간 확대와 투자연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한 대금 연동 기준을 적용하고, 수요 예측 고도화와 단가 조정을 통해 주요 자재의 사전 확보를 추진한다. 상생협력펀드 지원 대상도 그룹사 협력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한국엔컴퍼니,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차량배터리 부문 6년 연속 선정

한국엔컴퍼니의 ‘한국(Hankook) 배터리’가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최초 수상 후, 2021년부터 차량배터리 부문 6년 연속이자, 총 7회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

한국배터리는 한국엔컴퍼니그룹

고유 브랜드 ‘한국(Hankook)’의 패밀리티 브랜드로서 타이어·자동차 열관리 시스템과 함께 그룹의 핵심 동력으로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내의 전주공장, 대전공장과 함께 국내 납품전지 업계 중 유일하게 보유한 미국 현지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대외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KGC,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자폐성 장애 인식개선 공로

KGC는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과 포용적 문화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KGC는 2016년부터 임직원이 참

여하는 ‘세계 자폐인의 날’ 활동을 통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특히 2020년부터 ‘오티즘 레이스’를 후원하며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누적 참가자는 약 1000여명에 달한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JW중외제약, 혈우병 환자 인식개선 나서

교육용 만화책 제작·배포

JW중외제약은 오는 17일 세계 혈우인의 날을 맞아 여성 혈우병 환자와 보인자를 위한 교육용 만화책 ‘조금 달라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만화책 제작은 JW중외제약이 매년 전개하는 혈우병 환자 지원

프로그램인 ‘브라보 캠페인’의 일환이다.

콘텐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의 자문을 거쳤으며 혈우병 환자인 남동생을 둔 초등학교 주인공이 자신이 혈우병 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족과 함께 질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X하우시스, ESG경영 성과 입증

S&P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 등재

LX하우시스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6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Sustainability Yearbook)’ 회원으로 2년 연속 등재됐다.

14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번 평가에서 건축자재(Buildin

g Products) 산업군 기업 가운데 상위 8%를 기록했다.

특히 ▲에너지·물 사용량 절감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총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향상된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요양시설, 통제 넘어 개방으로



전용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우리 사회는 활기찬 일상을 회복한 지 오래다. 이동의 자유도 온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취약한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시간은 여전히 팬데믹 시기에 멈춰 있다. 일상 회복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과 안전 등의 명분으로 포장된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현재 적지 않은 요양시설이 거주자의 외출을 제한하고 가족의 면회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입장에서는 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을 핑계로 닫힌 문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가혹한 대가를 요구한다. 노인은 밖으로 나갈 자유를 잃고 가족과의 교류마저 통제되면서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는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을 안겨주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며, 소통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요양시설이 지니는 가장 근본적인 불안 요인은 바로 이 '구조적인 폐쇄성'에 있다. 통제된 환경은 밖에서 안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시설에 대한 불신감을 높인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는 돌봄의 질이 저하되거나 끔찍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인지하기 힘들어 학대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된다.

오늘날 선진국은 '시설의 개방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적극 지향한다.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요양시설을 거주 노인들만의 고립된 수용 공간으로 만들지 않는다. 요양시설에 정원, 카페, 식당, 다목적실 등의 공간을 설계하여 동네 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한다. 시설 방문을 일상 속에서 안부를 묻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간으로 바꾸는 훌륭한 효과를 낳는다. 여전히 외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우리의 현실은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인권적 퇴행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에는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쉬움을 남긴다. 감염 관리라는 명분 뒤에 숨어 개별 시설의 재량이 맡겨져 있어, 이 용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현장을 세심하게 지도하고 지침을 현실화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첫째, 면회를 거주자의 '기본권'에 가까운 일상 기능'으로 바라보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본 원칙은 '상시 개방'으로 두고, 면회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해야 한다. 무작정 면회를 막는 대신 사전예약, 공간 분리, 환기, 인원 상한치처럼 위험을 낮추는 설계를 표준화하고, 감염관리 지침 역시 '어떤 조건이면 개방 가능한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음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 3자가 시설에 방문해 어르신·종사자·보호자 면담을 하고, 인권침해나 생활불편을 파악해서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과 요양병원 평가 항목에 월별 면회 가능 일수, 외부 프로그램 운영 횟수, 보호자 만족도, 지역 개방 공간 비율 등 개방성 지표를 넣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어린이 방문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인간다운 삶은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하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 대표

짐승도 사람도 '응징 본능'



김연세 (정책사회부)

무력 사용은 보복을 부른다. 보복은 다시 피의 보복 등으로 반복된다. 이 공식은 세력계나 야마존에 서식하는 맹수들 간에도 작동한다.

10년 전쯤이다. 사자 두 녀석이 점박이하이에나 한 마리와 대적하는 장면이 한 SNS 영상에 담겼다. 이례적이다. 보통 하이에나 대역적이 암사자 한둘을 공격하는 장면을 봐 왔기 때문. 두 수사자의 상대인 영급 습에 하이에나 다수가 혼비백산해 흩어진 다. 그러나 출혈량에 실패한 한 마리. 처절하게 버텼지만 끝내 죽임 당하고 만다. 동영상 해설에 따르면 형제의 복수극이었다. 사건에 앞서 사자무리 암컷과 새끼들이 공

격박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로의 숨통을 끊고 영역을 넓히려는 사자와 하이에나 간 대립은 인간계와 닮아 있다. 돌연 별집을 쭉셔 놓은 미국과 이스라엘. 상대는 중동의 맹주 이란이다. 휴전이 라 하지만 사태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판국에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지는 대목이 있다. 이란에 당한 서아시아 주변국들이 잘 참아 내고 있는 것. 아랍에미리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반격을 감행했다면 파국의 꼭대기로 치달을 뻔했다. 물론 그럴 개연성도 싸 사라지진 않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를 신뢰할 리 없다. 뒷통수를 이미 세계 언어맞은 상황. 백악관은 전쟁발발 이후에도 표리부동의 행태를 보여왔다. 하메네이 제거로 임무는 끝났다면 미국, 이후 호르무즈 봉쇄에 전 세계가 유가 폭등 직격

탄을 맞고 다시 전쟁을 한 달이나 넘겨, 들고 나온 협상카드는 농축 우라늄. 그간 이란 및 레바논 전역에 미사일을 난사한 까닭이 온전히 핵개발 억제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그도 역시 공군력만으로 이란 제압하기란 불가능한 걸 잘 알 터. 이스라엘 역시 인구가 자국의 열 배나 되는 이란을 포격·공습만으로 상대하기엔 역부족.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선 미군을 등에 업은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중동전쟁 당사국 중 지상군 투입작전을 가장 바라는 쪽일지도 모른다.

백악관은 자평을 지속할 자유가 있다. 단, 지상전 계획만큼은 접은 뒤에. 미·이스라엘 육군의 이란 영토 진입은 대강을 부르고 테러 등의 불씨를 키운다. 팬스레 두들겨 맞는 걸프국들이 참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5일 (음 2월 2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어려움을 손조로 헤쳐 나가는 운세입니다. **60년생** 뒷사람이 베푸는 덕을 보게 됩니다. **72년생** 교통사고가 염려되니 유의하세요. **84년생** 원하는 회사나 대기업에 취직될 운이 있습니다.
- 49년생**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길합니다. **61년생** 외출은 고려하심이 좋겠습니다. **73년생** 작은 소망은 이룰 수 있습니다. **85년생** 욕심을 부리면 매사를 서두르게 되니 차분히 생각하세요.
- 50년생** 모든 액이 사라지는 운입니다. **62년생** 길중에 길한 일진입니다. **74년생**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며 번창일로에 서게 됩니다. **86년생**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날입니다.
- 51년생** 매사가 다소 순탄하지 못합니다. **63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75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87년생** 의도치 않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52년생** 주위에 믿음을 심어가며 때를 기다리세요. **64년생** 경거망동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76년생** 신중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세요. **88년생** 건강상에 흉신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 53년생** 자기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65년생** 가정에는 기본일이 생겨 행복한 일진입니다. **77년생** 모든 운이 길합니다. **89년생** 작은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 54년생** 주위의 시비나 구설을 조심하세요. **66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운은 없습니다. **78년생** 가급적 술자리를 피하세요. **90년생** 쉬은 듯하나 중도에 장애가 많으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 55년생** 지체가 필요한 운입니다. **67년생** 곧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79년생**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1년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투지를 가지세요.
- 56년생** 분명히 소망은 이루어 지리라 봅니다. **68년생** 동북방향이 길합니다. **80년생** 주변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좋은 일로 돌아옵니다. **92년생** 어려움이 닦쳐오나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 57년생** 걱정없이 무탈하고 편안한 날입니다. **69년생** 뽐족하고 날카로운 것을 조심하세요. **81년생** 승진운이 있었습니다. **93년생** 만족감에 유유자적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 58년생** 우연히 소중한 물건을 얻게 됩니다. **70년생** 노력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82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은 하루입니다. **94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 59년생** 주변사람들을 한번 더 생각하세요. **71년생** 북방에서 원조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83년생**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95년생**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인생의 봄

상담을 했던 사람들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오니 힘들었던 일이 풀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소식을 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운세가 트이고 인생의 긴 겨울이 조금씩 끝나고 있다는 신호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수심 가득한 얼굴로 상담을 왔던 사람이 생각난다. 매출이 줄고 거래가 끊기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걱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 다시 연락이 왔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손님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희망이 보이니 긴 겨울 끝에 맞이하는 따스한 봄날 같은 소식이었다. 계절에도 봄이 왔다. 봄은 풀어지는 계절이다. 겨우내 얼어있던 것들이 하나둘 풀린다.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움츠렸던 어깨도 활짝 펴진다. 추위가 물러가면 꽃이 피어난다. 매화가 먼저 피고, 이어서 개나리와 벚꽃이 뒤따른다.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보이던 나무들이 갑자기 꽃으로 가득 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겨울을 인생의 고난에 비유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마음이 힘들 때면 겨울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은 온다. 거리에 가득한 꽃은 결국 봄이 온다는 것을 매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람을 괴롭히던 추위도 어느새 모두 사라졌다. 지금도 누군가는 긴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날지 알 수 없어 답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절이 그렇듯 그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그리고 인생에도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봄에 꽃이 피어나듯 사람들의 삶에도 꽃은 피어난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꽃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합격의 꽃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꽃이 피어난다. 봄처럼 풀리는 때가 누구에게나 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5	7	4	2			
		4						
3	7		2					1
9				5	7			
5	3						6	7
			1	2				5
1					6		8	2
						5		
		6	7	8	5	3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1	8	9	8	4	9	6	2
9	4	9	2	1	6	8	8	7
2	8	6	9	8	7	4	9	1
9	6	7	8	2	1	8	9	4
4	9	1	6	7	8	2	8	9
8	2	8	4	9	9	1	7	6
1	7	9	8	6	2	9	4	8
6	9	4	1	9	8	7	2	8
8	8	2	7	4	9	6	1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환급... 서울시, 1조4570억 추경 편성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 3조로 확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도 2배 늘려
대중교통 활성화 등 체질개선 추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3개월간 매달 3만원을 돌려주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4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아 서울시가 1조 4570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원으로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 **피해기업 밀착지원 1202억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3부(무보증·무담보·무방문) 위기대응자금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조

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현장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오프라인 상품권 1000억원, 온라인 전용 상품권 5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환급지원도 병행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이 약 125곳을 대상으로 집중 할인행사를 새로 지

원해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자영업클리닉 지원 인원은 기존 1600명에서 3000명으로, 디지털 정착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은 400명에서 500명으로, 채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폐업지원은 4000명에서 450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고유가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운송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 **'대중교통 유도' 4976억원**
서울시는 고유가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차 전환, 피해계층 지원, 자치구 재정 보강 등을 담은 4976억원 규모 체질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동행카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0일권 이용자에게 3만원 페이백을 적용해 월 3만원 수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K-패스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물형·정액형 상품에 약 50% 한시 할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도 확대해 연간 지원 규모를 166만 명에서 169만명으로 늘리고,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운영기관에는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내연차량의 친환경 전환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저상 마을버스 8대를 전환하고, 고상 전세 버스는 기존 35대에서 62대로 늘린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1529억**
서울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529억원 규모의 서울시 부담분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를 70%가 적용되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서울시가 18%, 자치구가 12%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45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2차로는 1차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530억원 규모의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선제 지원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학교 내 도서관·수영장, 주민과 함께 쓴다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5건 선정
총 483억 지원... 농산어촌 우대

교육부가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5건을 모두 선정하고 총 483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안팎에 교육·체육·문화·복지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에는 우대 지원을 적용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학교·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학교나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에서 5개 사업이 신청됐으며, 신청 사업 5건이 모두 선정됐다.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원 가운데 55%인 4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사업을 보면 대전 서구에서는 대전성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이곳에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중심으로 돌봄교실, 커뮤니티 센터, 체육관, 주차장, 야외책놀이터가 들어선다. 충남 천안시에서는 충남예술고등학교 예술복합공간 건립 사업이 선정돼 공예예술복합공간과 야외무대,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삼평중학교 부지에는 수영장과 도서관, 문화센터, 지하주차장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경기의

정부시 고산초등학교에는 다목적실과 강의실, 창작실, 세미나실 등을 포함한 웰니스 센터가 조성된다. 광주 광산구 광일고등학교에는 소공연장, 메이커스 페이스, 공유카페, 피트니스, GX룸, e-스포츠실, VR체험실, 평생교육실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이 마련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2차 공모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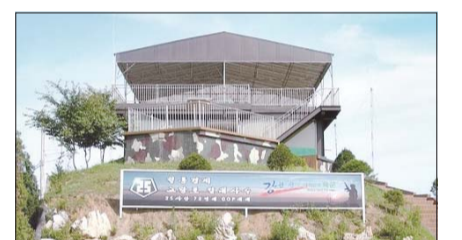
오는 17일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개방

연천군, 10월 31일까지 운영

연천군은 오는 17일부터 장남면 고랑포리 일대의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코스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에 조성돼 방문객이 평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연천군의 테마노선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 1.21무장공비침투로부터 1.8km의 철책 구간을 걸으며 비무선지대를 관람하고 버스를 이용해 연천 호로고루 사적 방문하는 코스로 전문관광해설사가 동행해 분단의 역사, 지역의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다. 운영 기간은 4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토·일 주3회, 하루 2회(오전·오후) 운영하며, 휴서기인 7~8월은 운영하지 않는다.



연천군이 오는 17일부터 장남면 고랑포리 일대의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코스를 개방한다. /연천군

투어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연천역에서 출발하는 투어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자차를 이용하는 방문객은 고랑포역사공원 인근 안내소에서 투어버스에 탑승해 코스를 진행하게 된다. 군은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10일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방문객 동선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연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경기 기후보험' 개편... 진단비 인상·사망위로금 신설

기후위기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경기도가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비 보장 금액 인상과 신규 항목 추가가 핵심이다.

먼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됐으며, 감염병 진단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됐다.

또한 중증 기후 피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 시 300만 원의 위로금이 신설됐고,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지급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일정 기준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도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 명에 더해 올해부터 임신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총 22만 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진단 기준과 추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또한 보험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청구지원 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기반 간편 청구, 전담 콜센터 운영 등 청구 시스템도 전면 개편됐다.

올해 사업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4월 15일 (수) 음력 : 2월 28일

해돋이 / 05:58 | 해질 / 19:07

수도권 날씨: 12 ~ 25°C

운동 지수: [진행도]

빨래 지수: [진행도]

세차 지수: [진행도]

외출 지수: [진행도]

전국 날씨 지도: 연천 9/25, 동두천 10/25, 가평 9/25, 양평 10/25, 용인 11/24, 평택 10/25, 파주 10/25, 인천 11/23, 수원 11/24, 안성 10/25, 백령도 9/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美, 기름 더 팔지만 가격은 오른다"...트럼프 호르무즈 봉쇄의 역설 /사진 뉴스
▲ 중국 3월 수출 증가율 2.5%로 "둔화"...중동전쟁 충격에 시 수요 효과 상쇄

▲ "EU, 中 철강 저가 공세에 관세 50% 인상키로"
▲ 트럼프, 주한미국대사로 한국계 정치인 미셸 스틸 지명

▲ 이란 "호르무즈는 우리 영해...통행 메커니즘 제공할 것"
▲ 헝가리 총리 당선인, 우크라이나 대출 거부권 철회 시사... "러 에너지 계속 수입"



K-뷰티 신홍강자
글로벌 질주
L2



Life

SK그룹
창업세대 AI 재현
L4



“지역·교육·취업 하나로... 전 생애 위한 직업교육의 길 열 것”

CEO 와칭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한국폴리텍대학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의 핵심 비전이다. 국내 노동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이 이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며 평생 노동법과 노동 현안 연구에 매진해 왔다. 그는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숙련 형성과 생산성 향상 없이는 노동·일자리 정책은 성공할 수 없으며, 노동법의 실질적 구현 역시 직업교육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대학 경영에 투영하고 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약력

- 1958년 경남 창원 출생
- 서울대 법학 학사·석사·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화여대 법대 교수
- 서울대 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고용노동사관계학회 회장
-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現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대한민국 기술 인재의 요람,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나다

1968년 설립된 한국폴리텍대학은 대한민국 직업교육을 대표하는 공공 교육 기관이다. 전국 35개 캠퍼스와 5개 교육원, 1개 고등학교, 257개 학과를 운영하며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약 330만 명의 기술 인재를 배출했다.

수치로 증명되는 성적표도 화려하다. 2년제 학위과정 취업률은 77.9%에 달하고, 취업 후 고용 지속성을 나타내는 유지취업률은 92.4%를 기록하며 국가 산업 성장의 인력 기반을 지탱해 왔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대학을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평생 직업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 산업과 세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청년·중장년·여성·이주배경 구직자 등 누구나 필요할 때 학습과 기술 전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도입한 핵심 전략이 ‘K-SHIFT(Korea Skill-up for Humanity Innovation and Future Technology)’다. AI·디지털 중심 교육, 모듈형 학습 구조, 융합형 교육과정, 유연한 입학과 학습 경로를 도입해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청년층에게는 신산업 기반의 첨단 기술 교육을, 중장년층에게는 AI·데이터 기반 재교육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이주배경 구직자를 위한 세분화된 직업 교육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AI’에서 ‘피지컬 AI’까지... 교육 혁신 박차

이 이사장은 미래 산업에 대비한 ‘모

국내 노동법 분야 최고 권위자 현장경험 살려 직업교육 전문가로

41개 캠퍼서서 인재 330만명 배출 개방형 평생직업교육 플랫폼 전환 맞춤 교육체계 ‘K-SHIFT’ 구축 AI교과 필수화... 피지컬 AI 교육도

지역 전략사업 분석해 교육 설계 지역별 맞춤형 신기술 인재 공급 국민 위한 직업교육 플랫폼 ‘목표’

두를 위한 AI(AI for All)’ 확산 전략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 과정에 AI 교과를 필수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AX(AI 전환)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AI를 배우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교육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피지컬 AI는 로봇, 지능형 제조, 스마트 물류 등 물리적 산업 환경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현장 작업 역량을 고도화하는 기술이다. KAIST와의 협력을 통해 성남, 청주, 창원, 전주 등 4개 거점에 피지컬 AI 실습실을 구축하고, 바이오 배양공정, 반도체·물류, 지능형 제조·로봇, 스마트팜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설은 지역 중소기업 등 민간에도 개방해 재직자 대상 교육과 공정·기술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방침이다.

◆ 지역 전략 산업과 상생하는 맞춤형 인프라

지역 전략 산업과의 밀착 행보도 구

체화되고 있다. 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인력 수요를 분석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으며, 반도체 특화지역에는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나주에는 전력·에너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구축했다.

또 인천, 순천, 포항 등 전통 산업지역에는 뿌리산업특화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진주와 송도에 각각 뿌리산업특화교육센터와 바이오 융합 교육센터에 추가 거점을 구축해 지역 맞춤형 신기술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산업과 직업교육을 결합한 AI 확산 모델은 폴리텍대학이 오랫동안 구축해 온 산학협력 체계와도 맞닿아 있다. 기업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취업·재교육·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재직자 역량 고도화, 지역 전략산업 연계 교육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철수 이사장이 그리는 폴리텍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선다. 지역 산업·교육·취업을 잇는 국가 시스템이자, 모든 국민이 전 생애 동안 다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국민평생직업교육 허브’다.

그는 “직업교육은 인간의 품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회 인프라”라고 강조한다. 청년에게는 기회의 사다리, 중장년에게는 제도전의 통로, 그리고 산업 현장에는 숙련기술을 혁신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



한국폴리텍대학 남원캠퍼스 전경.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지능형에너지설비과에서 중장년특화과정 공조냉동실습 수업을 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반도체인력양성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센터 내 클린룸에서 웨이퍼 표면 연마장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이정후, 미국서 ‘김 전도사’ 된다...해수부, LAFC·샌프 후원
▲‘준우승자 출신’ 정경섭, 프로당구 PBA 큐스쿨서 1부 잔류 확정 /사진 뉴스시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라트비아에 7-6 대역전승...세계선수권 첫 승
▲내·외국인 동반 ‘지역관광’ 확산...수도권 집중 완화·전국적 균형 성장

▲최휘영 장관, 영화계와 간담회...‘홀드백’ 등 현안 논의
▲빛과 공간 속 ‘관계’...오는 17~27일 베이징서 임옥석 개인전